

Hello! Pet,
Another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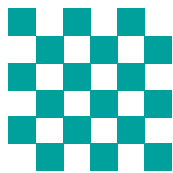
2023 동시대이슈전
 <헬로! 펫, 또 하나의 가족>

Artist's
Studio

예술가의 작업실
 신미선 작가

Artist Talk

아티스트 토크
 동시대이슈전 참여 작가 11인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APRIL-MAY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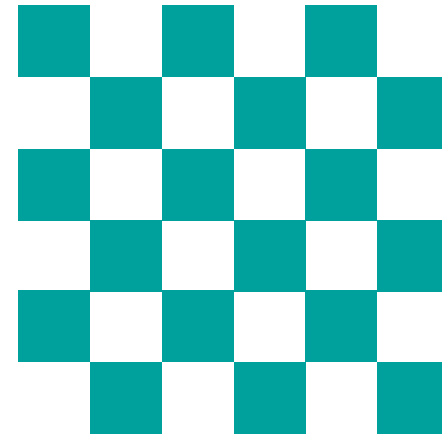


HELLO! PET,
ANOTHER FAMILY

2023 동시대이슈전
 <헬로! 펫, 또 하나의 가족>

04

05



Artist Talk

아티스트 토크
 동시대이슈전 참여 작가 11인

VOL. 168

Park Sueye

인터뷰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



예술가의 작업실
 신미선 작가



성남시 승격 50주년



2023 동시대 이슈전 헬로! 펫, 또 하나의 가족 2023.4.7 FRI - 6.25 SUN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www.snart.or.kr 성남큐브미술관 135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 매주 월요일 휴관 | 개관시간 10:00~18:00 | 문의 (031)783-8142-9

성남시 승격 50주년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지휘 데이비트 라일란트

어린이날 패밀리 클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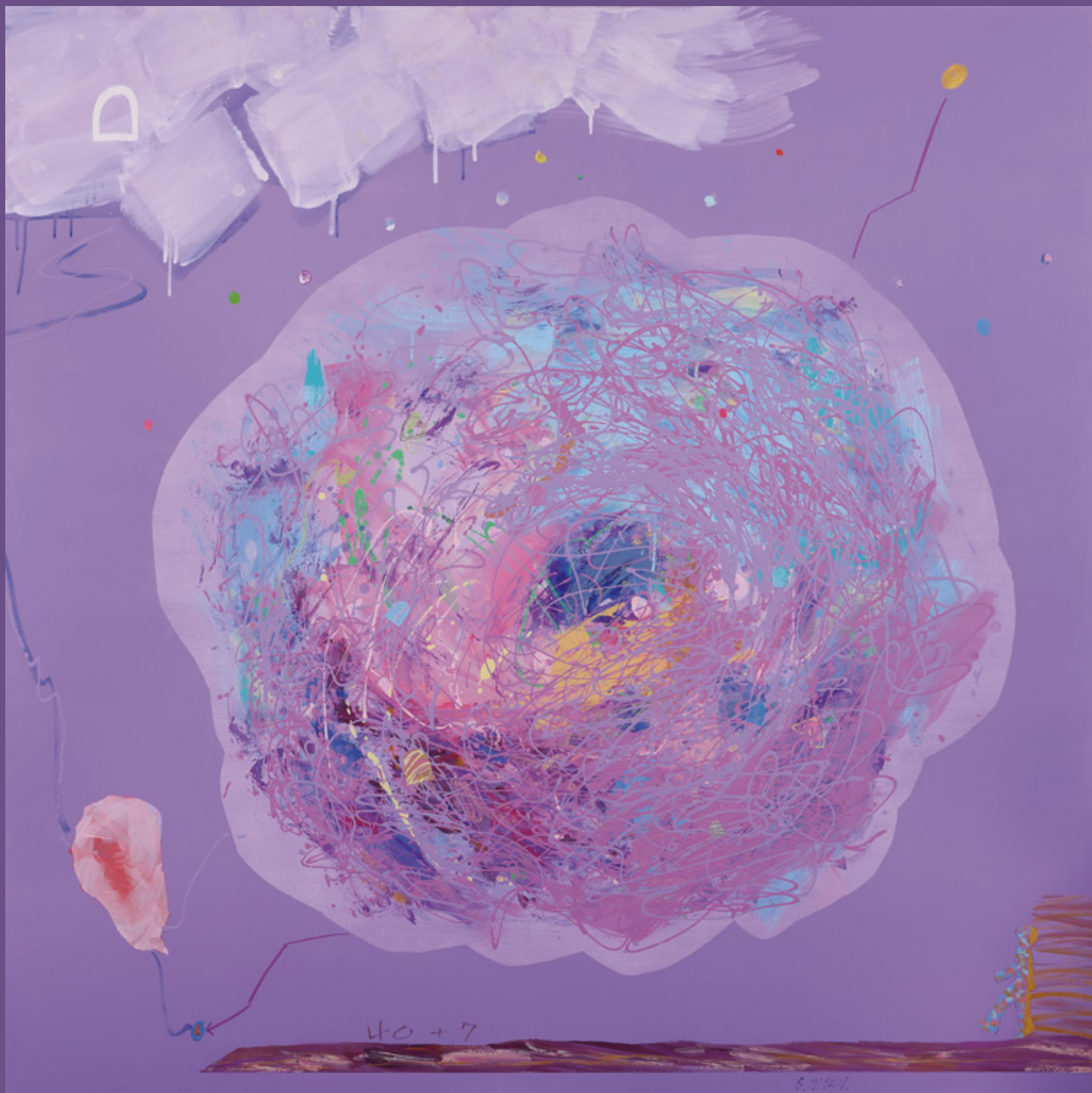
차이콥스키 발레 모음곡

연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첼로 고티에 카뮈송

2023. 5. 5 3PM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티켓 R 5만원 S 3만원 예매 성남아트센터 www.snart.or.kr 문의 031-783-8000



Exodus_The Way 162x162cm acrylic on canvas 2023

성남중진작가전 I: 신미선

여행자의 시간

2023. 4. 14 FRI - 6. 11 SUN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UNIVERSAL BALLET



SWAN LAKE

백조의호수

2023.6.16.FRI 7:30PM - 6.17.SAT 3PM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출연 유니버설발레단 | 지휘 김광현 | 연주 코리아쿱오케스트라

티켓 R 9만원 | S 7만원 | A 5만원 | B 2만원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문의 031-783-8000

The Urban Gallery at Hyperlane

이토록 경쾌하고 감각적인

어떤 공간은 발을 들여놓자마자 산뜻한 분위기로 기분을 전환한다. 쾌적함에 기본을 둔 재기 발랄한 공간, 바로 중국 청두의 하이퍼레인 어번 갤러리The Urban Gallery at Hyperlane가 그렇다. 2020년 건축 디자이너, 조경가 그리고 도시 예술가가 모인 글로벌 건축가 그룹 ASPECT 스튜디오는 하이퍼레인 어번 갤러리의 설계를 맡았다. 이곳은 총 2.4km 길이의 직선형 복층 공원으로, 청두 쓰촨 음악대학Chengdu Sichuan Conservatory of Music University의 중심에 위치해 청년 문화와

트렌디 라이프스타일의 거점 역할을 한다. 공원은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젊음, 음악, 생활을 지향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어 지역 내 교통과 대학 커뮤니티 및 캠퍼스를 연결하고 있다. 원래 이곳은 사회적·환경적 가치가 없던 버려진 주차장과 인적 드문 공원이었다. 공원과 인접한 음악대학 캠퍼스 가장자리는 벽으로 빙 둘러싸여 학생 기숙사가 가려면 좁고 낡고 어두운 골목길을 통해야만 했다. 단절감을 주던 기존의 벽을 허물고 재탄생한 하이퍼레인 어번 갤러리는 모든

글 강원영 객원기자
사진 제공 ASPECT studios(www.aspect-studios.com)

방향으로 연결이 가능해졌으며, 2km 이상 길게 뻗어 있는 배리어프리 하늘공원과 보행 연결로를 만들어냈다. 프로젝트의 메인 콘셉트는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사회 지향성 공간을 추구했다. 공동체와의 연대라는 취지로서 여러 층으로 디자인한 리드미컬한 원형

구조가 유쾌한 역동성을 주면서 다채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거리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지는 도심 산책로, 입구에서 문턱 역할을 하는 워터 카펫, 다양한 문화 모임이 가능한 퍼포먼스 갤러리, 다양한 색의 식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아기자기한 유선형 벤치 등이 감각적인 경험을 한껏 끌어올린다.



Contents

Vol.168
2023 04+05

THEME STORY

08
미리보기
2023 동시대이슈전
<헬로! 펫, 또 하나의 가족>

12
아티스트 토크
참여 작가 11인 인터뷰

VIEW

36
아티스트 토크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

40
미리보기 1
연극만원 <복길잡화점> <클럽베를린>

42
미리보기 2
성남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

44
미리보기 3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어린이날 '패밀리 클래식'

45
미리보기 4
<핑크퐁 클래식 나라: 두띠를 찾아라>

46
다시보기
필립 자루스키 & 앙상블 아르타세르세

ART WAVE

50
일상 속 디자인
사물의 뼈대에 관하여

54
아트 큐레이터
오케스트라의 튜닝

56
영화 속 클래식
영화 <우먼 인 골드>와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

58
도시설계자의 시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도시 건축 디자인 전략

INSIDE SEONGNAM

66
예술가의 작업실
신미선 작가

72
SNART NEWS

76
캘린더

성남문화재단 격월간 <아트뷰>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격월간 아트뷰 2023년 04+05월호
통권 168호(비매품) 2023년 3월 31일 발행
등록번호 성남, 마 00015
등록년월일 2005. 9. 12
간월 격월간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이사장 신상진
발행인 서정림
기획·편집 남소연 nam@snart.or.kr
교열 이지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전화 031-783-8024
홈페이지 www.snart.or.kr
편집·디자인 오니트(주) 02-337-3690

<아트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 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표지 작가 객수연, 김혜정



16 김혜정, 누렁이 1, 2022,
종이 위에 연필, 29.7x42cm



36



58



66

Hello! — Pet, ✱
Another Family



2023
동시대이슈전

헬로! 펫,
또 ✱ 하나의 가족

곽수연, 달토끼 이야기 I, 116x90cm,
장지에 채색, 2017

08

미리보기

함께한다는 의미

2023년 동시대이슈전

<헬로! 펫, 또 하나의 가족>

12

아티스트 토크

아름다운 공존을 꿈꾸다

참여 작가 11인 인터뷰

함께 ————— 한다는 의미

2023 동시대이슈전 <헬로! 펫, 또 하나의 가족>



정하경, 동실동실, 116.8x162cm, 장지에 채색, 2020

●4월 7일(금)-6월 25일(일)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031-783-8142~9

미술관에 들어서면 여러 마리의 귀여운 강아지들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바로 **주후식** 작가의 작품이다. 흙으로 형상을 빚고 테라코타 방식으로 구워 만든 다양한 강아지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강아지의 사랑스런 외형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빚어낸 강제 교배의 결과물은 아닌지 역설한다. 강아지를 매개로 인간 사회에 퍼져 있는 외모지상주의와 생명의 존엄성을 환기시킨다.

열대어를 키우던 보호자와 열대어가 같은 시기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목격한 **유혜리** 작가. 그날 이후 그에게 물고기라는 대상은 특별한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그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가는 오늘날 현대사회의 다양한 구조와 인간의 모습을 물고기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이야기한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고뇌와 인간적 성찰이라는 무거운 주제지만, 작가 특유의 동화적 표현 방식으로 편안한 공감대를 생성한다.

곽수연 작가는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 ‘개’에게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연과 인간, 인간과 개의 관계에 대한 주제에 오랜 시간 몰두해왔다. 한국화의 전통채색 기법으로 표현한 작가의 작품은 옛 민화, 풍속화를 현대적 시선으로 재해석한 친근함이 돋보인다. 작품 속 개는 마치 사람인 듯 능청스럽게 그려지는데, 작가는 이러한 해학과 풍자의 요소를 빌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승희 작가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사물이나 관념에 낮설고 새로움을 부여하며 익숙한 대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만든다. 인간과 개의 관계를 자신만의 독특한 시점으로 탐구하는 작가는 개와 관련된 동서양 설화의 인용과 재해석을 회화적 매체를 빌려 풀어낸다. 작은 신이 된 개

성남큐브미술관의 ‘동시대이슈’전은 현재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전시 형식으로 보여주는 기획이다. 동시대를 주제로 ‘이슈’와 ‘미감’을 격년으로 교차하여 문화·예술·사회·경제·정치 등이 반영된 주제로 선보인다.

2023 동시대이슈전 <헬로! 펫, 또 하나의 가족>은 지난해 전시 ‘식물키우기’의 연장선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낸 전시로, 11명의 작가가 전하는 반려동물 이야기를 회화·사진·영상·조각 등의 작품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글 **민재홍**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팀 과장



는 기존에 형성된 관계성에서 벗어나 신성적 세계와 세속적 세계 사이의 중재자로 존재하게 된다. 작가는 개들의 눈을 통해 바라본 세상과 그들의 감정을 들여다보며 청색의 세계를 구현한다.

김해정 작가는 동물복지와 환경을 주제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가 떠올리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의 반려동물이 아닌, 어떤 이유에 서인지 주인에게서 버림받은 개들, 굶주리고 아픈 개들의 모습 등 슬프고 힘든 이면을 포착한다. 귀한 생명임에도 여러 이유로 반려동물이 너무나 쉽게 버려지는 오늘, 작가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황폐해가는 자연과 그 안에서 고통받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작품을 통해 대변한다.

반려동물의 장례문화를 담은 **금혜원** 작가의 <Cloud Shadow Spirit>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기리는 다양한 방식과 태도에 관한 사진 시리즈이다. 반려동물의 수명은 육지 거북이와 같은 몇몇 종을 제외하면 인간 수명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렇기에 반려동물과 산다는 것은 먼저 떠나는 이들을 보내주는 의식과 함께해야 함을 뜻한다. 작가는 반려동물 장례식과 동물 묘지, 박제 작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일본·미국 등 여러 나라의 다양한 장례문화를 사진으로 담아낸다.

윤석남 작가는 천 마리가 넘는 유기견을 키우는 할머니에 대한 기사를 접한 뒤, 유기견을 주제로 약 5년간 나무를 직접 깎고 다듬고 칠한 1,025점의 조각 작품을 완성한다. 각기 다른 표정과 형상을 띤 조각 작품들은 어느 하나 같은 모습을 찾을 수 없다. 한때는 누군가의 기쁨과 사랑이었을 유기견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이기심이 남긴 흔적처럼 씩씩한 기분이 느껴진다. 이번 전시에서는 1,025점의 전작 중 300여 점을 전시, 버려지는 개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환기해보고자 한다.

전작 ‘핑크 & 블루 프로젝트’ 시리즈를 통해 ‘여자아이는 핑크, 남자아이는 블루’라는 색상의 통념이 어떻게 우리 사회 속에서 관습적인 틀로 엮여왔는지를 보여준 **윤정미** 작가. 작가의 또 다른 시리즈 ‘반려동물’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며 서로가 닮아가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이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직접 방문해 촬영한 결과물이다. 집, 산

책길, 공원 등 배경과 주인공은 다양하지만 사람도, 반려동물도 무척 행복해 보인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아영 작가의 작품 속 개들은 몸짓과 표정에서 행복감이 묻어난다. 작가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느낀 여러 긍정적 감정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섬세한 채색과 작품 속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오브제는 작품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며 웃음을 선사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반려동물과의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또 그들이 주는 사랑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를 이야기한다. **정하경** 작가는 우리 사회 속에 갇힌 고양이에 대한 여러 오해와 편견을 인지하며, 어린 시절부터 고양이와 함께하며 느꼈던 생각을 작품에 담았다. 작품 속 고양이들은 자개와 진주로 한껏 치장한 조선시대 부잣집 규수들처럼 귀하고 멋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작가는 일상의 일부인 반려동물과의 생활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거라 말한다.

이경숙 작가는 반려동물을 키우며 느낀 다양한 감정들을 고스란히 작품에 담아낸다. 작품 속 배경은 주제가 되는 강아지의 감정, 그 강아지를 지켜보는 작가의 감정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느낌들을 형상화한다. 작가는 한없이 작고 약할 것만 같은 모습에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던 존재가 어느새 나를 위로해주고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린 시절 강아지를 키우는 아이를 부러워하며 우리도 키우자고 부모님을 졸라본 적이 있다. 그때를 떠올리면 단순히 강아지가 귀여워서가 아니라, 서로 믿고 따르는 강아지와 아이의 관계가 부러웠던 것 같다.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것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함께한다는 것이며, 지치고 힘든 일상에 휴식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간 중심의 편견을 버리고,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동반자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름다운 — 공존을 꿈꾸다

아티스트 토크



곽수연, 김혜원, 김혜정, 유혜리, 윤석남, 윤정미, 이경숙, 이승희, 이아영, 정하경, 주후식, 11명의 작가들은 반려동물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와 삶의 방식, 그 속에 투영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담아낸다. 반려동물에서 시작된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대한 고민은 곧 생명과 환경, 자연과의 상생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까지 확장된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과장

외눈박이 나라의 두눈박이, 120x188cm, 장지에 채색, 2018

학력 한성대학교 예술대 회화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4 그림과 세상을 벗어나(한옥갤러리), 견공(갤러리 D) 2012 회귀동물 보고서(닥터박 갤러리) 단체전 2014 경재 내일의 작가(경재정선미술관), 아트바겐(갤러리 토스트), 까랑까랑(금정문화회관 전시실), 대만-한국 미술교류전(대만 의난현 정부 문화국 전시실) 외 수상 및 출판 2010 경재정선기념관 내일의 작가상 선정(경재정선기념관) 2007 제2회 강릉단오제미술대전 최우수상(강릉문화예술관) 2006 제10회 나혜석 여성미술대전 특선(경기도문화회관) 외



곽수연

‘반려동물’을 주제로 오랫동안 다양한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이 주제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또 작품 속의 강아지와 동물을 통해 작가님께서 전하시고픈 의미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1999년쯤 키우던 개를 드로잉하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는 사람과 무척 친근한 동물이고,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에피소드가 존재합니다. 또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견생이 달라지죠. 생각해보면 사람도 누군가와 의 인연에 따라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길들여진 동물을 통해 사람을 공부하고 싶어서 작업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에 대한 생각들과 주변, 그 주변을 포함한 사회, 사회를 안고 있는 환경 속 자연들을 작업화하면서 ‘사람’에 대해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그림 속에 표현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현 사회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화의 전통 채색 기법인 ‘진채’ 작업으로 그림을 표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진채가 지닌 특징과 매력은 무엇인지, 또 작품 완성까지 대략의 과정에 대해 여쭙보고 싶습니다.

진채는 예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채색화를 뜻합니다. 조선 시대 정조 대왕 때부터 쓰기 시작한 용어로, 궁중에서 화원이 많이 그리던 화려한 채색화를 ‘진채’라고 불렀습니

다. 우리 그림은 크게 수묵水墨, 담채淡彩, 진채眞彩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묵은 먹으로 그린 그림, 담채는 수묵에 색을 더한 그림을 말합니다. 진채는 이 둘을 합해 진하게 채색한 그림을 뜻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불화, 일원오봉도, 십장생도, 책가도, 문자도, 문인 초상화 등이 있습니다.

진채의 매력은 그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로 화선지를 여러 겹 붙인 ‘장지’나 비단 위에 광물성 물감인 석채를 사용해 그림니다. 돌가루인 석채는 조명을 비추면 반짝거릴 정도로 화사한 색감이 특징으로, 재료 특성상 옛날부터 부유층이 많이 소유했습니다. 모든 그림이 다 정성들여 제작되긴 하지만 진채는 물감을 아교물에 개어 여러 번 덧입히며 정성을 들여 그림니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대략 한 달 정도가 소요되지요. 지금의 채색화는 고가의 재료인 석채의 보완재로 인공 안료인 분채를 사용해 그리기도 하는데요, 석채와 같은 반짝거림은 없지만 석채보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선명한 색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 그림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예전 그림들을 포함한 작업들을 고루 선별해 구성했습니다.

금혜원



- 1 Cloud Shadow Spirit_P02,
pigment print, 90x200cm, 2014
- 2 Byeol, digital pigment print,
100x83cm, 2013

반려동물의 죽음을 추모하는 다양한 방식과 그 속에 담긴 삶의 풍경을 기록하는 연작들을 선보여오셨습니다. 작업 시작에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또 일련의 작업을 통해 담아내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작업 과정에서 경험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려야겠네요. 반려견을 떠나보내고 힘들어하고 있던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상실감을 제 아버지의 죽음에 빗대어 표현하더라고요. 제게 공감받고 싶었던 심정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때의 저로서는 적잖이 당혹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동물의 죽음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동물의 죽음이 인간의 죽음과는 좀 다른 차원이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대화는 이후 작업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중요한 물음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인간과 동물의 이 특별한 유대관계가 시사하는 동시대의 정서적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의 가려진 이면과 변화를 들여다보는 이전 작업들 그리고 이후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작업들과 최근작들까지, 작가님의 작업 전반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연결고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도시 공간을 다룬 사진 작업을 진행해왔는데요, 초반에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

에 더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도시의 정서적·심리적 환경의 측면으로 관심을 확장해가는 중입니다.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작업도 도시에 관한 일련의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묘지가 19세기 말경 런던·파리·뉴욕 등 대도시 인근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시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렇게 제 작업은 도시라는 삶의 환경과 그 환경을 둘러싼 역사·문화·사회 현상 등을 기록하고 가시화하면서 오늘날의 삶을 되돌아보고자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 구성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일본·미국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죽음을 추모하는 다양한 태도와 방식을 다룬 사진 시리즈 <Cloud Shadow Spirit> 등 전반적인 작업을 통해서, 인간과 동물 간 유대관계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반려동물의 장례식과 묘지, 동결건조 박제, 그리고 반려동물 유품과 관련 인터뷰 영상 작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Keum Hyewon

추모의 방식에 관하여



1



2



김혜정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오랫동안 진행해오시면서, 작가로서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도 존재하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작가님의 작품을 접하고 동물과 환경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게 되었다는 독자들도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혹은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순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해 전 『어디에든 우리가 있어』라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어요. 그림책으로 분류되어 어린이 독자들의 피드백을 종종 받곤 했는데, 한 아이가 동물들에게 너무나 미안해하는 마음을 적은 후기를 보내왔어요.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저지른 게 없는데, ‘어른들이 저지른 과오를 아이들에게도 물려주는구나’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죠. 어른으로서 부끄러웠고, 지금까지도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도시에서 살다 보면 자연, 또 동물들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가끔 깊은 숲에 갑니다. 인간이란 이유로 내가 다른 생명에게서 빼앗은 것들, 그로 인해 고통받고 망가지는 생태계를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받고 잊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림을 그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결코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풀어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도 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림도 있으니 가족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큰 개, 2012, 종이 위에 연필, 54x39cm

.....

반려동물부터 야생동물까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환경·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작업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작품에 담으시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유기전이었던 ‘자몽이’를 입양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개를 좋아하긴 했지만 유기동물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나 많은 개들이 버려지고 결코 안락하지 않은 ‘안락사’를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유기동물에 대한 그림을 포스터로 만들어 제 블로그에 올리고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는데, 우연히 그 그림을 본 <오보이!> 매거진 편집장님이 연락을 주셨죠. 한 장 두 장 매거진에 실게 된 작업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유기동물을 그리다 보니 다른 생명들의 삶에도 관심이 갔고 결국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동물권이나 생태계 보호가 모두 인간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지나친 육식과 난개발, 화석연료 사용, 핵발전 등으로 야기된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멸종, 생태계 붕괴, 팬데믹, 미세 플라스틱, 미세먼지, 환경 호르몬, 방사능으로 오염된 땅과 바다 등등, 인간이 저지른 일들로 인한 결과가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전시 2012 마음을 그리다(웨일런 갤러리, 서울) 2017 김혜정 그림 전시(동반 북스, 의정부), 동물원 Museum Zoo(서울대학교미술관) 2021 도시의 불빛 저편(금호미술관 서울)
출판 2015 <마음을 그리다> 2020 <달님 전설> <함께 산다는 것> 2021 <어디에든 우리가 있어>



집 House, 72.7x60.6cm,
Oil on Canvas, 2021

유혜리



학력 2021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대학원 과정), 영상원 애니메이션 전공 수료 2006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서양화 전공 졸업 2004 숙명여자대학교 회화과 서양화 전공 졸업 **개인전** 2022 My various world(갤러리 네트, 서울) 2021 My variety world(갤러리 더블럭스, 서울) 2016 Fish bowl(서울예술치유허브, 서울), A private walk(아트스페이스 네트, 서울)

물고기를 주제로 다양한 작업을 선보이고 계십니다. 작가님께 ‘물고기’라는 소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처음 물고기 작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물고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려동물이라기보다는 관상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어항 속 물고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삶이 보이고, 인간들의

삶이 오버랩됩니다. 결국 물고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볼 수 있게 되죠. 바라봄의 대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대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고기들은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해요. 물고기 작업을 시작한 지는 어언 8년이 되어갑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에 키우던 열대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물고기를 보는 순간 ‘물고기의 삶도 우리 인간과 다르지 않구나’란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 물고기라는 대상은 제게 특별하게 각인되었고, 물고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은유적으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작품 속에서는 인간이 물고기를 바라보는 익숙한 풍경도 존재하지만 물고기들이 때로 어항, 혹은 어떤 프레임 밖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며 그 속에 갇힌 듯한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런 설정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인간들은 우월하다는 사고로 자연을 정복하며 살아왔습니다. 물고기란 대상을 볼 때에도 대부분 수조 속 물고기들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죠. 하지만 스노클링을 위해 넓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물고기떼가 주변을 아무렇지 않게 헤엄치며 나를 관찰합니다. 물고기들의 입장에서 ‘나’는 함께 헤엄을 치는 생명체일 뿐이죠. 누가 더 우

Yoo Hyeree

우리의 모든 '물고기'를 돌아보는



1 우리들의 초상화, 112x112cm, Oil on canvas, 2022
2 꿈의 무계, 45x45cm, Oil on canvas, 2023



월한 존재인지를 떠나 함께 삶을 누리는 대상이 됩니다. 작품 속 물고기가 등장하는 풍경은 인간이 바라보는 풍경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혹은 편협한 우월감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바라보며 주변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물고기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선인장이 배경에 등장하는 신작들을 함께 소개하려 해요. 선인장과 물고기들은 어찌 보면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입니다. 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물고기들과 물이 희박해도 살 수 있는 선인장을 배경에 넣음으로써 생기는 아이러니한 간극을 통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죠. 메마른 사막과 가시 돋친 선인장들은 어찌 보면 힘들고 고단한 세상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색과 모양의 물고기들은 자기만의 옷을 입고 주어진 일을 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잠시 멈추기도 하며 자신을 찾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을 작품 속 다양한 물고기들을 통해 표현하고자 해요. 물고기들을 통해 감정 이입을 하며 쉽을 얻기도 하고 매일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원동력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석남

이번 전시에서 작가님의 대표작 중 하나인 <1025: 사람과 사람 없이>의 일부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됩니다. 인도네시아산 나무를 재료로 방부 처리에 두 달, 나무에 드로잉을 한 뒤 페인팅을 위해 표면을 갈아내는 후작업 등, 5년에 걸친 지난한 작업 공정이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휠 정도로 힘드셨던 과정만큼 한 마리 한 마리에 남모를 애착과 애정이 갔을 것 같은데요, 당시 어떻게 작업을 시작하셨는지요?

정확한 연도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2003년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일민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을 때, 동아일보에 실린 이애신 할머니의 기사를 접했죠. 천 마리가 넘는 유기견을 보살피고 있다는 사연을 읽는 순간 이 작업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고, 전시가 끝나자마자 경기도 파주로 할머니를 찾아 뵈었어요. 함께 유기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신이 기르던 개를 유기하는 인간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수치감, 유기된 개들에 대한 미안함이 느껴져 작업을 바로 시작하게 되었죠. 방문 당시 <애신의 집> 유기견 수는 무려 1,025마리였어요. 그렇게 작품 <1025>가 5년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마다 각기 다른 색상과 표현으로 다른 느낌을 작품에 담아주셨는데요, 무채색의 강아지와 색채가 있는 강아지 등이 나타내

는 의미도 다를 것 같습니다. 무채색의 강아지는 그들이 유기견 생활 중에 무지개다리를 건넌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채색된 작품들은 아직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을 뜻하죠.

여성 독립운동가 100인에 대한 작업 등, 여전히 열정적인 창작 활동으로 귀감이 되고 계십니다. 작가님께 창작의 원천이 되어주는 힘은 무엇인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창작의 원천이라는 큰 뜻이 좀 쑥스럽습니다. 어쨌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언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슨 일이든 말이죠. 제게는 미술 작업이 바로 그 일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비록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그것이 저에게는 미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력 1984 프랫 인스티튜트 그래픽 센터, 미국 1984 아트 스튜디오 리그, 미국 1967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개인전 2009 윤석남전(학교재, 서울) 외 그룹전 2009 거울아 거울아 - 그림 속 사람들 이야기(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 미술관, 과천), 루씨와 오렌지미술관(헬로우뮤지움, 서울) 2008 데일리 라이프 인 코리아(퀸즈갤러리, 태국), 메모리즈(김재선갤러리, 서울), 박경리 추모전-꿈엔들 잊으리야, 국립현대미술관주관(메스티발하우스, 통영 아트 성), 한국 여성주의 작가 3인 초대전(당진문화원, 당진), 언니가 돌아왔다(경기도 미술관, 안산) 수상 2007 제4회 고정희상 1997 국무총리상 1996 제8회 이중섭 미술상

윤정미



- 1 보경과 영서와 치코와 순아, 서울, 금호동, 2015
- 2 김수와 철수, 서울, 용산동, 2014

2014년부터 2년 동안 100여 명의 반려동물 가족을 촬영하시고 단행본 『반려동물』도 출간 하셨지요. 처음 작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긴 작업 과정 속에서 작가님께 생긴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저희 집 ‘몽이’와 제가 닮았다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서 종종 듣곤 했어요. 그런데 저도 산책길에 다른 반려동물 가족과 마주치다 보면, 그들 역시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반려동물과 그 가족을 같이 촬영하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한 것이 처음 이 작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죠. 2008년에 첫 사진을 찍었고 대부분의 사진들은 2014~15년에 촬영했는데요, 깔끔한 스튜디오 오보다는 그들이 함께 사는 집, 사무실, 산책가는 공원 등, 평소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촬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다양한 집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죠. 작업 이후 저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반려동물’에 관한 전시나 책 작업에 자주 섭외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 있겠네요(웃음).

오랫동안 반려동물 가족 작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가족들을 만나셨지요. 가족 구성과 공간 풍경은 다를지라도, 그 속에서 느끼신 공통점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작업을 위해 만난 분들 모두가 너무나 행복해하고 키우는 동물들을 정말 사랑해서 촬영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

다. 기를 키우는 것과 똑같았죠.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촬영을 다들 즐거워한 나머지 촬영 내내 웃고 있어서, 화보 같은 사진이 나오게 하지 않으려고 너무 활짝 웃는 사진은 피해서 고르기도 했어요. 이번 전시에서도 강아지, 고양이, 이구나나, 거북이, 토끼, 쥐 등 다양한 반려동물과 촬영한 기분 좋은 사진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의 에피소드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구나나를 키우는 집에 들어갔더니, 이구나나가 전기밥통을 끌어안고서 그 위에 착 달라붙어 있었어요. 거북이는 느릴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매우 빨리 걸어 다녀서, 촬영하면서 위치를 계속 바꾸기도 했죠. 강아지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거나 “나갈래?” “산책?” “고기”라는 말을 하면 카메라를 쳐다보는데, 고양이는 이름을 불러도 잘 쳐다보지 않아서 카메라를 손톱으로 치면서 시선을 끌기도 했어요. 또 낯선 사람이 방문하면 안 보이게 숨는 경향이 있다 보니, 모델들이 고양이

를 안거나 붙잡고 찍은 사진들이 많아요. 또 관객 여러분도 사진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반려동물과 그 가족들이 서로 은근히 또는 정말 많이 닮은 모습에 다들 신기해하기도 했죠. 촬영 과정에서 어떤 강아지는 제 촬영 가방에 오줌을 싸기도 했고 정신없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유쾌하고 재미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Yoon Jeong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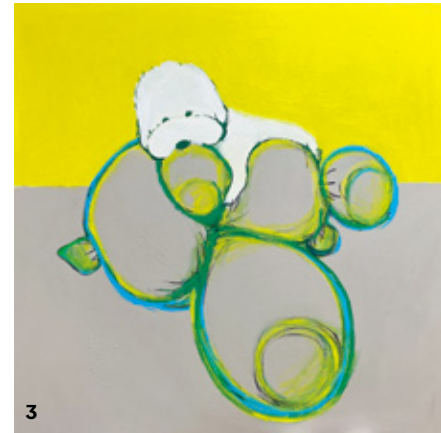
처음부터 가족입니다





이경숙

- 1 어서 와 안아줄게 I, 72.7x72.7cm, mixed media on canvas, 2022
- 2 호기심 II, 72.7x72.7cm, mixed media on canvas
- 3 Yellow-레오와 무민, 130.3x130.3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같습니다. 작품 중 <아직은 어색해>가 첫 강아지 작업인데요, 서로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작품 전반의 짙푸른 톤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작가님이 지향하시는 색채감이나 톤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작품에 사용하신 색채들은 어떤 의미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원한 그린과 블루 톤을 좋아합니다. 이전 작업에서도 그랬듯이 어떤 대상의 표현 방법도 중요하지만 파스텔 톤 색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내는 작업을 좋아해요. 강아지 작업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모험을 나타내기에 어울리는 색채가 푸른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또 작품 전반을 통해 전하시고픈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지도 여쭙보고 싶습니다.

강아지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제가 어떤 작업을 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저의 반려견 이름은 ‘용감한 비송 오 레오’인데요, 레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마음을 따뜻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해왔던 것들, 말하자면 그리고 지우고 낙서하고 등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강아지는 작가님의 반려동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얽힌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만나셨고 작가님께 어떤 존재인지, 화폭에 담으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20여 년 전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애들 성화에 못 이겨 강아지를 두 차례 입양한 적이 있어요. 그때 돌보는 방법이 잘 몰랐고 정신적 여유도 없었던지 두 번 다 실패하고 돌려보냈는데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다 성인이 된 딸아이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또다시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었고, 역시나 돌봄은 제 차이가 되었어요. 케이지 안에 있던 작은 생명체가 너무 안쓰러워 보여 데려왔는데, 예전의 미안함까지 더해져 이젠 서로 의지하며 위로를 받는 것

학력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 일어일본학과 졸업 개인전 2014 가나아트스페이스(서울), 2014, 2019 SNAF 갤러리808(성남) 그룹전 2015 인사동 사람들 (라메르갤러리, 서울), 제11회 청담 크로키전(현대아트센터) 외 2016 KIAF 부스전(park Fine Art) 2018 한일 현대회화교류전(일본 북아판 갤러리) 2019, 2022 꿈과 희망전(갤러리808, 성남), Korea Art Show 부스전(수원컨벤션센터, 광고) 외

이승희



인간과 개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작업으로 구현하고 계십니다.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 또 작품을 통해 전하고픈 이야기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가 선사하는 어떤 마음에 대해 회화적으로 접근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집에 들어왔을 때 저를 기다리던 개의 머물렀던 자리와 온도가 정말 따뜻하고 선명했던 기억이 생생해서, 그 마음을 시각화하는 작업에 관심이 있어요. 개의 역사적 신화와 주위의 스며든 사물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동서양의 공통된 설화를 재해석하거나 인용하여 무소부지한 속성을 지닌 것들에 회화적 매체와 함께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개 다섯 마리와 살면서 겪은 경험과 애정, 에너지들을 작업에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과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그동안 숨겨둔 감정을 모두 들킨 기분이 들어요. 나를 속속들이 꿰뚫어 보는, ‘나는 네가 어디서 무얼 했는지 다-아 알고 있어’라는 눈빛이거든요. 그 눈을 통해 저 자신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타자의 삶을 보기도 해요.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폭삭 망해버린 인간 세계를 안타깝게 여겨 ‘개’라는 작은 신을 급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 눈을 통해서 나를, 타자를, 그리고 주변의 삶을 되돌아보라고, 아주 아주 큰 마음과 함께 말이죠.

작품 전반에 푸른색을 주로 사용하시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개는 색맹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색을 인지한다고 해요. 블루와 그린, 그 사이 어딘가의 색을 본다고 하죠. 제게 푸른색은 종종 우울함으로 다가오는 것들인데, 그런 색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들이 푼크툼punctum처럼 마음에 작용했어요. 이런 마음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개가 선사하는 어떤 마음과 오랜 역사 속에서 수호적 역할을 해오던 개들이 과거의 문화권에서 활약했던 방식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역사와 사랑, 그리고 일상문화적인 시선으로 구성해본 전시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머문 자리의 온도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 문화권의 개의 설화인데요, 『그리스·로마 신화』 중 오리온의 개, 별이 된 시리우스 이야기를 오래된 문짝, 수집한 개 관련 우표와 함께 새로운 세계로 이어주는 메신저로 재구성합니다. 인간과 개가 함께해 온 역사를 들여다보며 그 과정 안에서 물질적 교류와 접촉하며 맺되는 애정, 그리고 대상 주변의 시간성·관계성을 둘러보는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Lee Seounghee

그들이 선사하는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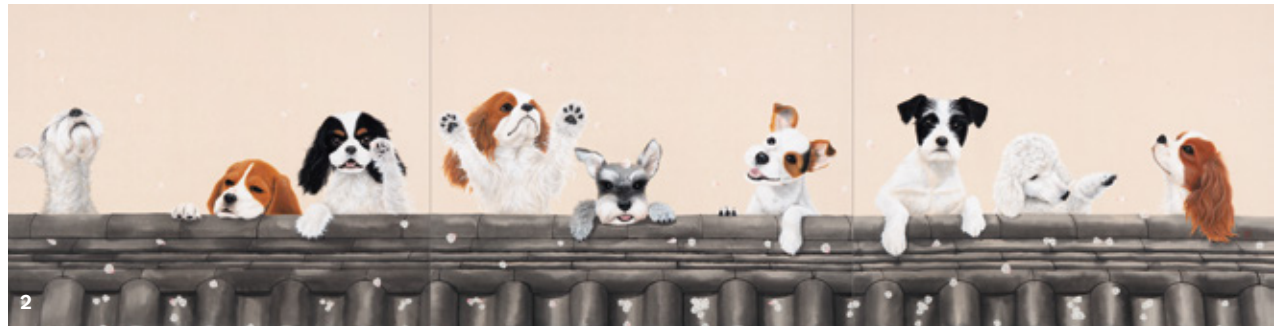
1 물음표, 캔버스 위에 혼합 재료, 259.1x181.8cm, 2020
2 개처럼 살아라, 행복하리니!, 3D 프린트, 절구통, 동전, 35x35x67cm, 2023

학력 2019~21 홍익대학교 일반 대학원, 동양화과 전공(MA) 2015~18 런던예술대학교, 첼시 칼리지 오브 아트 파인아트 전공(BA, FA)
개인전 2021 서울문화재단 비넥스트 시각예술 분야 선정사업: 신과 개의 마음(문래예술공장, 서울), 고양문화재단 우수작가 선정 전시: 고양 아티스트 365(고양아람누리, 고양)
2020 Blue eyes(온수공간, 서울) 그룹전 2022 Image tracking(전시공간, 서울), This Title Is Not Available In Your Region(GASP gallery, Newyork, USA) 2020 Blue(을지로 OF, 서울) 수상 및 선정 2021 서울문화재단 BENXT 비넥스트-시각예술 부문 선정 2021 고양문화재단 고양우수작가 선정





이아영



엇일까’ 고민하다 사랑하는 반려견을 그려 보자는 생각에 처음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 작품의 특징 중 하나가 오브제 사용인데, 목줄을 오브제로 활용해 그린 첫 강아지 작품이 주변 반응도 좋았고 작업도 재미있었죠. 제가 사랑하는 대상이자 함께 생활하는 존재를 소재로 선택하니 흥미로운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고, 작업하면서도 작품에 더 애정을 쏟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 지금까지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 강아지 그림을 그려오고 있습니다.

작품 속 강아지들, 또 그 속의 상황들은 마치 현실에서 지켜보는 듯한 생생함이 전해집니다. 이런 세부적인 소재에 대한 영감은 어떻게 얻으시는지요?

아무래도 강아지라는 소재가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주변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존재라 친근감이 느껴지고 작품 속 상황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더욱 생동감 있는 표현을 위해,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며 실

제 사용하는 우리 주변의 물건들을 오브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오브제들은 종종 화면 밖 전시 공간에 설치되기도 하는데요, 작품 속 강아지와 전시 공간, 관람자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로 작품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작품 속 강아지의 상황은 그 심리 상태가 느껴질 수 있는 모습들을 주로 그리고 있어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의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 강아지들의 심리 상태가 느껴질 때, 그 찰나의 순간에서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그 봄 아래서> <내가 잡겠어!> <Shall we go?> 등, 봄에 시작되는 전시인 만큼 생기 있는 강아지의 모습들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주로 골라보았어요. 작품 속 강아지들의 모습에서 밝은 에너지와 재미를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작가 노트에 ‘안고 있으면 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그 온기를, 그 포근함을 잊을 수 없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작품 속의 강아지들 역시 모두 따뜻한 온기와 사랑스러움을 가득 전하는 느낌인데요, 강아지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또 작가님의 삶 속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추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슬플 때 힘이 되어준 존재는 더욱 고맙고 기억에 남게 되잖아요? 어릴 적에는 강아지가 그런 존재였어요. 강아지와 소소한 일상을 나눈 추억도 많지만, 속상한 일이 있을 땐 강아지를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제 품에 안긴 강아지가 울고 있는 제 얼굴을 핥아주면 위로받는 느낌이 들곤 했죠.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는 해줄 수 없지만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학부 때부터 동물들을 주 소재로 작업을 해왔는데요,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내가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그릴 수 있는 것이 무



- 1 Shall we go?, 90x89cm, 장지에 채색, 오브제, 2021
2 어느 날, 그 봄 아래서, 73x273cm (73x91, 3ea), 장지에 채색, 2021

정하경



‘고양이 작가’로 통하고 계시지요. 고양이를 작품에 담아내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10년간 고양이를 키워오면서 고양이에게 편견을 지닌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년간 고양이를 키워온 경험에서 비롯된 고양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은 저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 짙은 문화를 바꾸고자 자연스럽게 작업으로 이어졌어요. 작품 속 ‘고양이’가 저와 함께 살아가며 원동력이 되어주는 생명체이자 가족임을 기억해주길 바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작품 속 고양이의 자세와 표정 못지않게 시선을 사로잡는 요소가 바로 그들이 입고 있는 한복과 조바위인 것 같습니다. 색깔이나 디자인, 장식들이 참 정교하고 아름다운데요, 전통 의상과 장신구의 표현을 위해 어떤 과정·기법을 거치시는지요?

고양이에게 한복을 입힌 이유는 전통 사회에서 유달리 부정적이었던 고양이의 인식에 주목한 것도 있으며, 한국적인 미를 투영한 걸 모습을 통해 편견이 치유되길 바라서였습니다. 사람과 같은 옷을 입고 사람처럼 자세를 취하게 된다면 고양이도 단순히 동물에만 머물지 않고 사람처럼 정서를 교감할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음을 관객분들이 느껴보셨으

면 합니다. 또 한복과 장신구를 그리더라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요소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조바위에 자개를 엮었습니다. 일 반적인 ‘반짝이’는 인공적으로 만든 재료가기에 작품에 사용했을 때 이질감이 느껴진 반면, 자개는 자연에서 온 재료이다 보니 조 바위에 사용했을 때 부드럽게 잘 어우러졌습니다. 한층 더 반짝거리고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라는 의미로, 자개를 활용해 고양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시 구성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양이를 처음으로 담아낸 작품부터 최근작까지의 시리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전시회가 아닌 한국 사회의 편견 짙은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하고 고양이의 매력에 풍당 빠지는 뜻밖의 행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양이의 시선에 동양화의 부드러운 선과 채색이 더해진 모습을 통해 단순히 귀엽고 예쁜 작품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한 다양한 편견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Jeong Hakyoung

편견이 애정으로 변할 수 있도록

- 1 그릉그릉 I , 116.8x91cm, 장지에 채색, 자개, 2020
- 2 그릉그릉 II, 116.8x91cm, 장지에 채색, 자개, 2020
- 3 근엄근엄, 91x65cm, 장지에 채색, 자개, 2019



1



2



3



학력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조소 전공 졸업.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대학원 미술학과 조소 전공 졸업 개인전·기획초대 2022 동반자: 러브 애니멀(한국경제신문사, 서울), 2021 상호교감전(춘천 강아지숲 박물관), COMPANION-동반자 '너와 내가 보는 세상'(금산갤러리, 서울), 개와 함께(영무파라드 호텔, 부산), Cute dogs(K2 Korea, 서울) 2020 LOVE-Animal(IFC서울, 서울), Companion animals(카페 단조, 서울) 2019 PRADOG'S(다이브인 갤러리, 서울) 2018 내가 사랑하는 개 나를 사랑하는 개(다함갤러리, 안산), 개판(스페이스 신선, 서울) 외 단체전 2023 BAMA 2023(백스코, 부산), 신년하례전(아트스페이스 호서, 서울), 십이지展(무수갤러리, 서울), LA ART SHOW 2023/gallery 아트 인 동산(LA컨벤션센터, 미국) 2022 우리, 동물 그리고 예술(갤러리 북과바디, 창동예술촌 & 창원시청) 외



주후식

심과 욕망을 폭로하고 풍자하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작품 속 품종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는지요? 또 작업 속에서 개의 '눈' 표현에 집중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인간에 의해 가장 많이 변형된 품종들을 소재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잉글리시불독은 인간의 개량으로 인한 면역체계와 자가 임신, 출산의 어려움으로 인공수정과 제왕절개를 통해 품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이 품종을 만들었던 영국에서는 영구 단종을 시켜 더 이상 불독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인간이 강아지들에게 가하는 학대인 것입니다.

개의 눈은 사람의 눈처럼 표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에, 작품 속에서는 사람의 눈으로 전환하여 표정이나 감정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외관상 개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견종을 통해서 인간과 사회, 또 인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간의 삶의 형태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테라코타 작품 20여 점과 한지 작품 20여 점을 공간과 벽에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석 10,000원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 토·일 2pm, 6pm

문의 031-783-8000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러브레터

① 러브레터

3.25 - 3.26

50여 년 간 이어진 두 남녀의 러브레터



② 복길잡화점

4.29 - 4.30

웃음과 감동이 버무려진
온가족을 위한 힐링 연극



③ 클럽베를린

5.27 - 5.28

연극과 현실, 소와 다큐멘터리를
넘나드는 베를린 여행이야기!

2023 연극滿員 시리즈

연극
만원



THORNTON WILDER
OUR TOWN

⑥ 우리읍내

11.25 - 11.26

특별할 것 없는 삶의 순간순간들
무심히 흘러보내는 시간들의 고마움...



⑤ 붉은머리안

9.2 - 9.3

리듬에 맞춰 흥백
빠져드는 힐링음악극
우당탕탕 사랑스러운 소녀
'안'의 성장스토리

④ 고시원

6.24 - 6.25

재개발을 앞둔 낡고 오래된 고시원,
길의 끝에서 외로움을 함께하는 사람들...

硯時院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성남시 승격 50주년

VIEW

36

아티스트 토크

음악을 향한 여정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

40

미리보기 1

웃음과 눈물, 기억이 꽃피는 극장

연극만원 <복길잡화점> <클럽베를린>

42

미리보기 2

러시아의 낭만을 만나다

성남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

44

미리보기 3

아름다운 환상 속으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어린이날 '패밀리 클래식'

45

미리보기 4

우리 아이의 첫 번째 클래식

<핑크퐁 클래식 나라: 두띠를 찾아라>

46

다시보기

이토록 완벽한 밤

필립 자루스키 & 앙상블 아르타세르세

아직은 겨우 20대 초반의 나이, 그러나 발매한 인터내셔널 음반만 벌써 다섯 장에 달한다. 그중 <Journey Through a Century>(BIS)는 영국의 권위 있는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의 ‘에디터스 초이스’와 ‘올해의 음반’으로 선정되는 성과까지 이뤘다. 피아니스트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 언드라시 시프와 같은 거장들의 음반과 나란히 선정되는 쾌거였다. 아홉 살 어린 시절부터 독일에서 공부하며 활동한 탓에 우리에게 아직 낯선 이름이지만, 눈치 빠른 애호가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박수예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리사이틀과 협연 등 국내 관객들과의 접점을 차분히 넓혀가는 박수예가 5월 18일 파가니니의 협주곡으로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 무대에 선다.

음악을 향한 여정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

네 살 때 부모님과 갔던 레스토랑에서 현악 4중주단 연주를 보고 곧장 바이올린 연주를 흥내 내셨다고 들었어요. 어린 시절 정식으로 바이올린 레슨을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바이올린의 어떤 점에 끌렸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악기를 가르쳐주신 선생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커요. 무작정 소리가 매력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종일 바이올린을 붙잡고 있긴 했지만 처음엔 얼마만큼, 또 어떻게 정확히 연습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뛰어들었거든요. 첫 선생님께서 어린 저에게 기초를 잘 지도해주심과 동시에 악기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참 재미있게 가르쳐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대 울프 발린^{Ulf Wallin} 교수님의 권유로 아홉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독일로 조기 유학을 떠나셨어요.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유학을 결심하셨는지요?

2009년 발린 선생님께서 내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너무 어려서 클래스에는 참가하지 못했는데, 마침 제 주위에 예전에 발린 선생님과 함께 빈에서 공부했던 분이 계셨어요. 운 좋게도 그분께서 선생님께 인사드릴 기회를 만들어주셨죠. 그날의 만남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도 못 한 채 발린 선생님을 만나러 갔던 생각이 나요. 아무 곡이나 연주해보라는 말씀에 짧게 연주를 들려드렸는데, 바로 베를린에서 공부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주셨어요. 부모님도 고민 없이 즉각 제 유학을 준비하셔서 몇 달 뒤 베를린에서 음악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아홉 살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발린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오셨어요. 발린 선생님께서 지도하면서 가장 강조하시는 점, 또 수예 씨가 항상 마음에 새기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테크닉이 어려운 곡일수록
음악적인 매력과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겨우 아홉 살이었지만, 선생님은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항상 제 스토리를 궁금해하셨고, 항상 제가 스스로 고민하고 음악성을 키우길 원하셨어요. 물론 이를 위해 저도 아주 엄격히 몇 년 동안 철저히 기본기를 배웠고요. 그때의 트레이닝이 지금 제가 연주를 하면서 음악가로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줬던 것 같습니다.

열일곱 살에 데뷔 앨범으로 파가니니의 24개 카프리스를 선택했습니다. 녹음은 옛세만에 마쳤지만 준비는 1년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모든 과정이 쉽진 않으셨을 듯한데, 돌아보면 이 작업이 현재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파가니니 카프리스 녹음 확정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1년 동안이 준비 과정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실제 준비 과정은 제가 바이올린을 처음 잡았던 순간부터 녹음실에 도착한 열여섯 살의 그날까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께 기본기와 연습 방법, 다양한 곡들을 배우지 않았다면 분명 어려움이 컸을 테니까요. 또 녹음이 정해진 후 1년 동안 파가니니 카프리스만 연습하지 않고 동시에 브람스, 시벨리우스, 프로코피예프 등 다른 협주곡들을 배운 것도 아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파가니니만 했다면 이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먼 미래를 미리 잘 알고 계셨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새삼 신기하기도 해요. 또 어린 나이에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겁 없이 무작정 뛰어난 것도 이 레코딩을 가능케 했다고 봅니다. 돌아보면 이 프로젝트는 제 인생의 전환점 중 하나였어요.

어린 나이지만 스웨덴의 명문 음반 레이블 BIS에서 이미 여러 장의 음반을 남기셨고, 또 <그라모폰>을 비롯한 많은 매체와 평단에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음반 작업만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 다음 음반 계획도 궁금한데요.

음반은 음악가의 명함이고 평생 남을 유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음반을 내면서 성장해가는 저의 음악을 들으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때 그 순간에만 가능했던 연주들을 기록에 남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올 4월에는 BIS에서 새로운 앨범이 나올 예정입니다. 폴란드 출신 작곡가 카를 시마노프스키의 <신화, Op.30>와 <바이올린 소나타 D단조, Op.9> 등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담았는데 기대가 커요. 다음 녹음 계획도 논의 중이어서, 조만간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발린 선생님이 콩쿠르 출전을 극구 반대하셨지만, 이제는 자율로 말기신다고 들었어요. 도전을 준비하고 계신 콩쿠르들이 있는지요?
물론 생각하고 있는 콩쿠르들은 있죠. 조금 더 확실해지면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 마티네 콘서트에서는 성남시립교향악단, 정나라 지휘자와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협연하시지요. 수에 씨가 생각하시는 작품의 매력, 이 곡을 해석할 때

박수예가 BIS 레이블에서 발매한 음반들.
파가니니의 24 카프리스(BIS-2282 SACD)와
<Journey Through a Century>(BIS-2492 SACD),
4월 선보일 시마노프스키 신보(BIS-2652 SACD)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파가니니 콘체르토는 열한 살 때 처음 배웠고 이후 몇 번의 연주 기회를 통해 더욱더 깊이 파고들 수 있었어요. 물론 이 곡은 절대적으로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최고의 테크닉을 요구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매력은 아름다운 선율입니다. 잔잔한 오케스트라 반주 위에 솔리스트가 마음껏 노래할 수 있죠. 작곡가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 리스트 등은 파가니니의 연주를 듣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의 소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심플하면서도 로맨틱한 선율이 들어가 있는 이 곡은 니콜로 파가니니의 연주 그 자체가 아닐까 싶네요.

테크닉과 음악적 표현의 완성도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 파가니니 협주곡의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균형을 어떻게 조율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테크닉이 어려운 곡일수록 그 작품의 음악적 특징, 매력과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야 그 곡의 테크닉상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도 쉬워지니까요. 당연히 그 두 가지를 성취하려면 기본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지만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악기로 연주하시나요?

정말 감사하게도 삼성문화재단에서 과다니니(G. B. Guadagnini, 1753 ex Hamma)를 후원해주셨어요. 마음을 울리는 저음이 특히 매력적인 악기죠. 제가 연주하고자 하는 것들을 한계 없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면 어떻게 여가를 즐기시나요? 베를린에서 좋아하시는 장소는 어디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바이올린 이외의 취미는 보통 책 읽거나 산책, 여행 등이예요. 베를린은 동쪽과 서쪽 각각의 매력이 있는데, 혼자서 생각을 정리할 때면 서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공원들을 찾아 무작정 걷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에는 동쪽의 독특한 카페나 레스토랑을 많이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또 음악가로서 베를린에 사는 가장 큰 장점은 너무나 훌륭한 음악가들의 연주를 필하모니 등 많은 연주장에서 정말 쉽게 감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깊이 탐구하고픈 작곡가, 혹은 작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너무 많아요. 슈베르트, 베토벤, 모차르트의 음악, 그리고 앞으로 버르토크, 쇼스타코비치 등의 음악도 아주 깊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계획 중이신 중요한 일정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는 한국 외에도 스위스, 스웨덴, 독일, 폴란드, 스페인 등에서 협연 및 리사이틀, 실내악 페스티벌 등의 일정이 있어요. 6월에는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협연으로 브라질 상파울루 데뷔 무대를 갖습니다. 같은 달에는 요엘 레비가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과 함께 차이콥스키 협주곡으로 한국 관객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웃음과 눈물, 기억이 꽃피는 극장

연극만원 <복길잡화점> <클럽베를린>

글 김주연 연극 평론가

평단과 대중으로부터 고루 인정받은 연극 작품들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성남아트센터의 연극만원^{滿員} 시리즈가 올해에도 시작되었다. 봄기운 가득한 4월과 5월을 맞아 서로 다른 색깔의 연극 두 편이 무대에 오른다.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복길잡화점>과 낯선 경험을 여행연극이란 독특한 형식 속에 담아낸 <클럽베를린>. 각기 다른 이야기 속에서 극장은 웃음과 눈물, 기억이 꽃피는 공간이 된다.

복길잡화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사랑

2022년 대학로에서 첫선을 보인 뒤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낸 연극 <복길잡화점>은 소박하고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이다.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30년 넘게 잡화점을 운영해온 경석은 더 이상 잡화점은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들 복길과 갈등을 겪는 중이다. 그 와중에 아내 연화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석은 아들과 예비 며느리, 손녀를 소집해 연화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기억 찾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아들과 손녀는 당황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연기를 펼친다.

<복길잡화점>은 제목 그대로 관객에게 다채로운 감정을 선사하는 ‘잡화점’ 같은 연극이다. 웃음과 눈물, 코믹한 유머와 따뜻한 감동이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가족애를 보여준다. 표면상으로는 치매에 걸린 부인의 기억을 되살리려 고군분투하는 한 남편의 순애보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기억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아들 부부의 이야기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끈끈한 정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현재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과거를 재현하는 극중극을 통해 교련복이나 버스 토큰을 팔던 80년대 잡화점 풍경을 들여오며 옛 추억을 소환하는 기억의 잡화점이기도 하다.

아내에 대한 경석의 사랑은 시종일관 표현되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은 또렷하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석이 그토록 아끼고 지키고자 하는 잡화점의 이름이 ‘복길잡화점’, 즉 아들의 이름을 내건 상호라는 점은 그의 지극한 아들 사랑을 보이지 않게 드러낸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느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가족에 대한 사랑

이라는 것을 <복길잡화점>은 잔잔한 웃음과 감동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클럽베를린: 하룻저녁에 다녀오는 베를린

가방 하나 들고 훌쩍 떠나는 여행은 많은 이들의 로망이지만, 대부분은 현실에 발이 잡혀 실행하지 못하고 한다. 대신 유튜브 랜선 여행이나 여행 서적, 현지 가이드들의 강연 등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들이 여행에 목마른 사람들의 욕구를 대신 채워주고 있다. 낯선 환경과 색다른 풍경, 이국적인 체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은 잠시나마 아쉬움을 달래주는 작은 즐거움이다. 박선희 연출과 몇몇 배우들이 꾸준히 올리고 있는 ‘여행연극’ 시리즈는 이러한 맥락에서 낯선 곳을 여행하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독특한 형식의 연극이다. <인디아 블로그>로 시작된 ‘여행연극’ 시리즈는 관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 <터키 블루스> <라틴아메리카 콰르텟> <인사이드 히말라야> <클럽베를린> 등 다채로운 시리즈를 선보인 바 있다. 이 중 이번에 소개되는 작품은 독일과 주변국을 여행한 기억을 담은 <클럽베를린>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작품은 배우들이 베를린에 직접 가서 보고 느낀 경험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브란덴부르크 문, 티어가르텐, 체크포인트 찰리, 카이저 빌헬름 교회 등 베를린의 대표 명소들이 배우들의 대사와 사진, 영상으로 생동감 있게 펼쳐진다. 하지만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추모비와 유대인 박물관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낀 배우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베를린 너머의 작센하우젠 강제 수용소와 폴란드 크라쿠프의 게토, 그리고 아우슈비츠로 알려진 오시비엥침 수용소로 향하고, 시종일관 경쾌하게 이어지던 이야기는 이곳 수용소에 이르러서는 숙연하고 먹먹한 순간을 전하게 된다.



- 1 연극 <복길잡화점>
- 2 연극 <클럽베를린>

- 4월 29일~30일(복길잡화점), 5월 27일~28일(클럽베를린) 오후 2시·4시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 문의 031-783-8000

특별한 서사나 스토리가 없는 소박한 여행기지만, 배우와 연출 스스로의 경험과 여행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덕분에 모든 장면이 솔직하면서도 생생하게 다가온다. 중간중간 주인공들이 현지에서 마주치는 상황이며 도시와 거리, 인물들에 대한 묘사도 구체적이고, 현지에서 찍어 온 사진과 영상 역시 이야기에 실재감을 더한다. 사방이 꽉 막힌 소극장에서 지구 저편의 낯선 풍경과 새로운 문화를 만나고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연극의 힘이고 상상의 힘이다. <클럽베를린>은 바로 그러한 연극적 상상의 힘을 관객도 함께 체험하게 해주는 작품이다.

러시아의 낭만을 만나다

성남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과장

2022년 개관 이후 꾸준히 다채로운 기획의 클래식 무대를 선보여온 성남아트리움,

2023년에는 ‘작곡가 시리즈’라는 테마 아래 러시아의 낭만주의 거장

라흐마니노프와 차이콥스키의 작품을 집중 조명한다.

4월 22일, 그 첫 순서로는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는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을 준비했다.



라흐마니노프

- 4월 22일(토) 오후 5시
-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 031-783-8000



성남아트리움 전경

증과 슬럼프로 시달리던 라흐마니노프가 1901년 그 자신의 초연으로 화려한 성공을 거두며 명성을 공고히 한 작품으로, 애수에 찬 서정과 낭만, 장중한 스케일이 곡 전체를 관통하는 명곡이다. 몇 년 전 한 방송사가 진행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설문 조사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곡이기도 하다. 교향곡 2번 역시 과거 교향곡 1번의 실패를 만회하며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로서 라흐마니노프의 이름을 다시금 각인시킨 작품으로, 협주곡 2번과 마찬가지로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잿빛 애수, 웅장하면서도 낭만적인 서정미가 가득하다. 공교롭게도 두 작품 모두 미국의 가수 에릭 카멘이 자신의 노래에 선율을 가져와 큰 인기를 누렸다는 점은, 라흐마니노프가 시공을 초월해 일반 대중에게도 보편적인 감성으로 다가서는 힘을 지녔던 작곡가라는 점을 증명한다. 연주가 마무리되는 순간, 라흐마니노프가 그려낸 아름답고 장대한 낭만의 감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낭만주의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한 해가 될 듯하다.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1873~1943}의 탄생 150주년이자 타계 80주기를 맞아 그가 남긴 빛나는 유산을 탐구하는 연주회들이 빼곡하기 때문. 성남아트리움 역시 ‘작곡가 시리즈’를 통해 러시아 낭만주의 음악의 두 거장, 라흐마니노프(4월 22일)와 차이콥스키(6월 24일)를 탐구한다. 라흐마니노프 편에서는 전 원주시향 상임지휘자로 활약했던 김광현이 지휘하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2018년 게자 안다 쿡쿠르 2위 등 여러 국제 쿡쿠르에서 입상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피아니스트 박종해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과 교향곡 2번을 들려준다.

특히 협주곡 2번은 위대한 작곡가이기 이전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라흐마니노프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곡이다. 큰 키와 커다란 손에서 빛내는 놀라운 기교와 파워의 소유자였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작품은 모두 자신의 연주를 전제로 작곡한 만큼, 협주곡 역시 극한의 기량을 요구하는 난곡으로 알려져 있다. 협주곡 2번은 우물

성남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

낭만주의

RACHMANINOFF



SERIES I

라흐마니노프

4. 22. sat 5PM

피아노 협주곡 제2번

Piano Concerto No. 2 in c minor, Op. 18

교향곡 제2번

Symphony No. 2 in e minor, Op. 27

KOTCHAI VSKY



SERIES II

차이콥스키

6. 24. sat 5PM

피아노 협주곡 제1번

Piano Concerto No. 1 in B-flat minor, Op. 23

교향곡 제6번 ‘비창’

Symphony No. 6 in b minor Op. 74 ‘Pathétique’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티켓 R석 3만5천원 | S석 2만5천원 | 시야제한석 1만원 | 문의 031-783-8000 | 예매 www.snart.or.kr

아름다운 환상 속으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어린이날 ‘패밀리 클래식’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과장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5월 5일 어린이날,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무대에 선다. ‘패밀리 클래식-차이콥스키 발레 모음곡’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발레 음악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첼리스트 고티에 카뮈송의 한국 초연 협주곡까지, 익숙함과 새로움 속에서 국립심포니의 다채로운 색깔을 느낄 수 있다.



- 5월 5일(금) 오후 3시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031-783-8000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2023 시즌 프로그램에서 특히 주목할 키워드는 바로 세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올 한 해 베를리오즈, 프로코피예프, 차이콥스키, 세 작곡가들이 남긴 <로미오와 줄리엣>을 통해 각 작곡가들의 개성과 사랑의 가치를 돌아본다는 의미를 담았다. 5월 5일 성남아트센터에서 들려줄 프로그램 역시 차이콥스키 버전 <로미오와 줄리엣>과 더불어 국립심포니가 추구하는 ‘다양성’과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구성으로,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이 함께 감상하기에도 부담 없는 프로그램이다. 환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에 이어 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 속의 공주>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차이콥스키의 풍부하고 낭만적인 선율을, 대니 엘프만의 첼로 협주곡에서는 한국 초연의 새로움을 만날 수 있다.

이번 무대는 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가 지휘를 맡고, 국내 애호가들에게도 친숙한 프랑스 출신 첼리스트 고티에 카뮈송이 함께한다. 독주와 협연, 실내악,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오랜 세월 정상의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티에 카뮈송은 바이올리니



스트인 형 르노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연주자다. 이번 에 들려줄 곡은 미국 출신의 영화 음악 작곡가 대니 엘프만 Danny Elfman의 첼로 협주곡. 바로 카뮈송 자신이 지난해 빈 콘체르트하우스에서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세계 초연한 작품이라 더욱 기대가 크다. 엘프만은 100편이 넘는 영화 음악을 작업하며 수차례 오스카에도 노미네이트된 바 있는 영화 음악계의 거장으로 <가위손> <빅 피쉬> <크리스마스 의 악몽>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등 팀 버튼 감독과의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위촉으로 작업한 퍼커션 협주곡이 지난해 콜린 커리 협연으로 런던 사우스뱅크 센터 초연 무대를 가지는 등,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돋보이는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간 엘프만이 영화 음악에서 보여준 특유의 환상적인 색채와 더불어 초연을 맡은 카뮈송의 연주까지, ‘믿고 듣는’ 순서로 기대해볼 만하다. 언제나 연말이면 선물처럼 찾아오는 <호두까기 인형>의 아름답고 낭만적인 음악과 더불어, 새로움이 주는 신선한 감흥까지 가득한 무대가 될 것이다.

우리 아이의 첫 번째 클래식

<핑크퐁 클래식 나라: 뚜띠를 찾아라>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과장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공연은 많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아이가 ‘진짜 쉽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공연, 부모도 함께 즐거운 공연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아이의 첫 번째 클래식 공연을 고민한다면, <핑크퐁 클래식 나라: 뚜띠를 찾아라>는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공연이다.

- 5월 28일(일) 오후 3시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031-783-8000

꼭 육아 중인 부모가 아니더라도 ‘아기상어~ 뚜루루루’ 멜로디를 한 번쯤 들어보지 않은 이는 없을 것이다.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핑크퐁이라는 이야기처럼, 이제는 국민동요를 넘어 전 세계 아이들을 사로잡은 글로벌 키즈 콘텐츠 핑크퐁. 아이들이 이토록 좋아하는 핑크퐁과 ‘아기상어’를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로 만난다면 어떨까? 아이에게 클래식 음악에 대한 새로운 감성을 일깨워주고 싶다면 <핑크퐁 클래식 나라: 뚜띠를 찾아라>를 추천한다. 뮤지컬과 클래식을 오가며 ‘아기상어’ 등 친숙한 ‘최애’ 멜로디를 오케스트라의 생생한 연주로 감상하며 신나게 어깨를 들썩이고 짹 짹 박수를 치면서 음악과 어우러질 수 있는 시간. 핑크퐁의 대표 동요가 김영랑이 지휘하는 바빠르 오케스트라, 실력파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와 성악가들, 그리고 핑크퐁과



아기상어, 펭귄 코러스의 대활약과 함께 펼쳐진다.

공연이 시작되면 핑크퐁과 아기상어,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사자왕의 생일파티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바리톤 아저씨와 소프라노 공주, 펭귄 코러스와 클래식 나라의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뚜띠Tutti’를 찾는다.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과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사자왕의 행진’, 핑크퐁 동요를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한 ‘뚜띠를 찾아라’ 등의 친숙한 선율 속에 캐릭터들의 유쾌한 연기가 펼쳐진다. 다음은 ‘악기 마을’ 차례. 핑크퐁 오리지널 동요인 ‘뽕뽕 응가체조’ ‘상어가족’ ‘왕벌의 비행’ 등과 더불어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가 아기자기한 스토리로 이어진다. ‘공룡마을’과 ‘오페라마울’을 지나 ‘사자왕의 생일파티’까지, 아이들은 핑크퐁 친구들의 모험 속에서 다양한 클래식 악기와 명곡의 선율, ‘다 함께’ 연주하는 것을 뜻하는 ‘Tutti’의 의미 역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낯설지만 조금은 궁금했던 ‘클래식 나라’ 첫 방문, 이만하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즐겁고 특별한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이토록 완벽한 밤

필립 자루스키 & 앙상블 아르타세르세

• 3월 5일 오후 5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글 이준형 음악칼럼니스트
사진 최재우

필립 자루스키가 한국을 찾았다. 2014년,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함께했던 내한 연주회 이후 8년 만이다. 이번에는 경력 초창기에 직접 창단한 앙상블 아르타세르세^{Ensemble Artaserse},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바로크 오페라와 모차르트 작품으로 맹활약 중인 헝가리 출신 소프라노 에뫼케 바라트^{Emőke Baráth}와 함께했다.

이번 연주회는 우선 독특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내한 연주회에서 자루스키는 ‘전설적인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18세기 유럽을 뒤흔들었던 카스트라토 슈퍼스타, 파리넬리^{Farinelli}와 카레스티니^{Giovanni Carestini}가 불렀던 아리아를 노래했다. 반면 2017년에 발표한 <오르페우스 이야기^{La Storia di Orfeo}> 음반에 바탕을 둔 이번 연주회는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를 소재로 한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Claudio Monteverdi}, 루이지 로시^{Luigi Rossi}, 안토니오 사르토리오^{Antonio Sartorio}의 17세기 오페라 세 편을 엮어 하나의 파스티초(짜깁기) 미니 오페라를 선사했다. 화려한 기교를 중시했던 18세기 오페라에서 언어의 수사적 표현을 중시했던 17세기 오페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셈인데, 이제 40대 중반으로 접어든 자루스키의 최근 행보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꾸준히 바로크 오페라에 출연하지만, 얼마 전부터 그는 점차 더 내면적인 깊이를 갖춘 작품으로 이동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데뷔 이래 거의 부르지 않던 독일 음악, 특히 바흐 칸타타와 수난곡에 집중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전성기 그 이상의 완성도

오랜만에 실제 무대로 접한 자루스키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목소리나 기술로만 본다면 -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면 여전히 훌륭했지만 - 확실히 예전 모습에는 다소 못 미쳤다. 초반에 고음에서 살짝 흔들리기도 했고, 더러 윤기나 호흡 조절이 아쉬운 대목도 있었

다. 하지만 악곡 해석과 가사를 전달하는 표현력에서는 이제까지 보았던 연주 중 가장 훌륭했고,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카운터테너다운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본래부터 자루스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던, 다른 성악가들과 잘 어우러지는 앙상블도 여전했다. 중반부터는 긴장감과 집중력이 더해지며 무대를 완전히 장악했는데, 프로그램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몬테베르디의 ‘위대한 정령이여^{Possente spirito}’는 가사에 담긴 감정의 변화와 음악적 상징성을 낱알이 드러낸 감동적인 연주였다. 본래 카스트라토나 카운터테너를 위한 음악이 아니었음에도 말이다. 어쩌면 연주자와 청중의 친밀감을 보장하는 적절한 연주회장 규모 덕분에 더 감동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 순간만큼은, 필립 자루스키는 분명 우리 시대의 오르페우스였다. 음반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던 합창이 삭제된 대신 몇몇 기악곡이 추가되면서 성악가의 비중이 더욱 커졌지만, 자루스키는 이를 모두 감당하고 그 이상을 제공했다고 할 만하다. 한마디로, 가수의 역량이 꼭 물리적인 쇠퇴와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그리고 모든 예술가는 ‘현재진행형’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 무대였다. 소프라노 에뫼케 바라트는 공연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다. 자루스키 못지않게 인상적인 노래와 연기를 들려주었는데, 최근 유럽의 오페라 극장에서 각광받는 이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대중적 지명도나 프로그램 구성이 자루스키 쪽으로 다소 기울었지만, 바라트는 음영이 풍부한 음색과 섬세한 프레이징, 모든 단어를 또렷하게 발음하는 표현 등 17세기 성악곡에 잘 어울리는 좋은 취향을 드러내면서 에우리디케 역을 노래했다. 음색이 다소 얇고 여린 자루스키는 바라트나 마리-니콜 레뫼 Marie-Nicole Lemieux처럼 힘 있고 중량감이 있는 여성 성악가들과 유독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연주와 연기, 연출의 삼위일체

기악 연주를 맡은 앙상블 아르타세르세도 연주회의 성공에 큰 몫을 담당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현악 합주 위주의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현악기와 관악기가 대등하게 어울리는 르네상스풍의 구성이었는데, 개별적인 연주자들의 역량도 돋보였지만 음악적 양식이 꽤 다른 세 작곡가의 오페라를 매끄럽게 소화하는 양식감도 인상적이었다. 이제 역사주의 및 시대악기 연주의 기술적 수준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연주였다고 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연기와 연출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싶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콘서트 형식의 오페라가 널리 유행하고 있는데, 훌륭한 무대도 있지만 때로는 지나치거나 어울리지 않는 연출과 의상이 오히려 몰입을 방해하는 때도 있다. 그런 면에서 간략한 의상과 소품, 그리고 조명으로 배경을 암시하고 두 가수의 연기에 집중한 이번 연주회는 ‘콘서트 오페라’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인상적인 연기와 노래로 청중을 매료시킨 필립 자루스키와 에뫼케 바라트. 이날 공연은 관객의 이해를 돕는 자막과 더불어, 간단한 소품과 무대 조명의 변화만으로 극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풀어가며 몰입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성남시 승격 50주년

우리 아이 첫 번째 콘서트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핑크퐁 클래식나라

뚜띠를 찾아라



핑크퐁, 아기상어, 대니 구 바이올린, 바샤르 오케스트라 지휘 김영랑

2023.5.28 SUN 15:00 PM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주최 (재)성남문화재단 티켓 R 4만원 S 3만원 예매 성남아트센터 www.snart.or.kr 문의 031-783-8000

ART WAVE

50

일상 속 디자인

뼈대 있는 디자인
사물의 뼈대에 관하여

54

아트 큐레이터

왜 무대에서 음을 맞출까
오케스트라의 튜닝

56

영화 속 클래식

잃어버린 황금시대
영화 <우먼 인 골드>와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

58

도시설계자의 시선

도시와 건축공간, 회복도시에 대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한 도시 건축 디자인 전략

뼈대 있는 디자인

사물의 뼈대에 관하여



© Vitra

Bone

23년 전, 멕시코에서 열린 한 학술 대회에서 파울 크뤼첸 Paul J. Crutzen이라는 대기화학자가 ‘인류세Anthropocene’라는 말을 꺼냈다. 지질 시대를 따져보면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홀로세Holocene를 살고 있다. 하지만 기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류세가 도래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그 근거 중에는 ‘닭 뼈’가 있다.

닭 뼈와 디자인

백악기의 증거가 공룡 뼈였던 반면, 인류세를 대표하는 화석은 닭 뼈라는 말이다. 블루버그 통신에 따르면, 크뤼첸이 인류세를 외친 2000년에 비해 닭고기 소비가 두 배로 늘어서 올해 전 세계 닭고기 소비량은 9800만 톤이 될 것이라고 한다. 공장식 축산을 거쳐서 도축된 닭은 다 어디로 갈까? 사람이 살코기를 먹고 부산물을 이런저런 용도로 활용한다고 해도 절반 가까이는 버려진다고 한다. 그중 상당 부분이 ‘뼈’다. 이게 디자인과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이 뼈에 관심을 둔 디자이너가 있다. 엘라 아인헬 Ella Einhell이라는 독일 디자이너로, 그는 도축해서 폐기하는 것이 동물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뼈를 생태적 재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To The Bones’라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닭을 포함한 동물의 뼈로 사람과 환경에 해로운 소재를 대체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친환경 포장재와 건축 자재부터 테이블에 놓을 소품, 인테리어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했고 2021년에는 그 프로젝트로 마트 스타م 공모전Mart Stam Preis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동물 뼈는 도자기를 얹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18세기에 이미 활용되었다. 본차이나bone china가 그것이다.

‘에펠 의자’로 불리는 <DAR> 디자인: 찰스 & 레이 임스

사물의 뼈대

뼈를 개념적으로 보면 사물의 구조, 즉 골격으로 볼 수 있다. 몸에 뼈와 근육이 있듯이 사물에도 기본 골격이 있다. 멋진 형태도 그 속의 구조부터 디자인된 것이다. 적절한 예로는 파리의 에펠탑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에는 강철 구조를 높이 세우는 기술 혁신이었으나 구조(뼈대)만 있는 미완성 건물처럼 보였다고 한다. 파리 시내에서 그 건물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곳인 에펠탑 아래 식당에서 점심을 했다는 예술가들이 있었을 만큼 흥취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에펠탑은 오래전에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디자인의 본질 또는 정수를 보여주었다. 모더니스트들의 건축, 가구 디자인에서도 구조가 곧 형태이면서 미학적인 완성도를 보여준 예가 적지 않다.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와 임스 부부Charles Eames & Ray Eames의 의자가 여전히 사랑받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임스 부부가 디자인한 DAR 의자는 다리 부분의 금속 프레임이 에펠탑 구조를 닮았다고 해서 ‘에펠 의자’로 불리기도 한다.

철골 구조물이 공업 생산의 미학을 보여주었다면, 디지털 설계 방식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computational design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의자에서 뼈대를 드러내는 디자인이 ‘최적화optimization’의 결과로 나타나곤 했는데 최근에 디자이너들이 실험하는 생성적 디자인generative design은 아예 알고리즘을 활용해 그야말로 살을 빼고 뼈서 생명체의 뼈를 닮은 디자인을 내놓고 있다.

알고리즘이 디자인한 뼈

네덜란드 출신의 디자이너 요리스 라르만Joris Laarman은 그러한 디자인의 선구적인 작업을 선보였다. 2006년작 <본체어Bone Chair>는 새로운 조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 자동차 산업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시도하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가구에 접목한 것이다. 기본적인 형태의 조건을 정한 뒤 구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뼈 나가다 보니 뼈대만 남은 형태가 되었다. 이것은 디자이너가 예상하고 설계한 것이 아니다. 형태와 구조는 프로그램에서 최적화해낸 결과다. 요리스 라르만은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틀mold을 만들었고 그 틀에 알루미늄으로 캐스팅한 것을 다듬어서 마무리했다.

그 이후에는 제작하는 과정까지도 디자이너의 손을 거칠 필요가 없어졌다. 일찌감치 명성을 얻은 프랑스 디자이너 필리프 스타르크^{Philippe Starck}가 더 진보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엄밀히 말하면 오토데스크^{Autodesk}사, 카르텔^{Kartell}사가 함께 만든 것이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토데스크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한 창의적인 제품을 누구보다도 먼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름 있는 디자이너, 가구 회사와 손을 잡았던 것 같다. 2019년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서 첫선을 보인 그 결과물의 이름은 <에이아이^{A.I}>다. 역사상 최초로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생산된 의자의 상징적인 이름이다.

<본 체어>와 <에이아이>는 둘 다 유기적인 형태를 보여 준다. 마치 의도적으로 뼈, 나뭇가지 같은 생명체의 구조에서 따온 것처럼 자연스럽다. 장식을 걷어내고 생산에 적합한 효율성을 따지며 기하학적인 형태, 미니멀리즘을 추구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극도의 효율성을 따진 알고리즘 기반의 디자인이 기하학적이기보다는 유기적이고 기괴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미드저니^{Midjourney}, 달리 2^{Dall-E 2},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미학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있나? 필리프 스타르크는 <에이아이> 의자를 디자인하고 나서 “인공지능은 문화나 기억,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에이아이>는 인간의 뇌 밖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밖에서 디자인된 첫 번째 의자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데 지금 우리가 곱씹어볼 말이다.

효율과 기억

효율성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목직한 덩어리에서 뼈가 드러날 때까지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걷어낸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화도, 기억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닐까. <공학적 시간성^{Engineering Temporality}>이라는 작품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실마리가 된다. 뼈대만 남은 가구인데 그마저도 골다공증에 걸린 것처럼 숭숭 구멍이 나 있다. 핀란드 출신의 디자이너 투오마스 마르쿤포이카^{Tuomas Markunpoika Tolvanen}은 ‘희미해지는 원본의 기억을 간직한 기능적인 오브제’로 만들었다고 한다. 알츠하이머로 건강이 쇠약해진 할머니의 삶에서 기억이 사라지는 모습을 곁에서 본 톨바넨은 사람뿐 아니라 사물의 연약함과 돌봄을 생각하게 되었다. <공학적 시간성>은 실제로 가구를 쇠파이프 조각들로 덮은 뒤 불로 태워버린 것인데 태우는 과정이 기억의 소멸 개념을 상징한다. 물

- 1 <본 체어>
디자인: 요리스 라르만
- 2 <에이아이>
디자인: 필리프 스타르크

- 3 <사코>
디자인: 피에로 가티,
체사레 파올리니,
프랑코 테오도로
- 4 <공학적 시간성>
시리즈 중 옷장과 세부
이미지.
디자인: 투오마스
마르쿤포이카 톨바넨

론 옷장 문도 열고 옷을 수납할 수 있어서 가구 역할을 전혀 못 하지는 않지만 껍데기만 남은 상태가 된다. 톨바넨은 새로운 스타일의 가구를 디자인하려던 것이 아니라 효율과 완성도를 보여주는 대량 생산품과 불완전한 인간 사이의 드라마를 연출하려고 한 것이다.

뼈만 있으면 될까

디자인을 뼈와 연결 짓는 것이 엉뚱해 보이지만 앞에서 살펴봤듯이 진짜 뼈든, 은유적인 뼈든 다양한 측면에서 디자인과 연결된다. 19세기 말부터 진행된 ‘형태’와 ‘기능’ 논쟁에서 신의 창조물이 갖는 가장 효율적이고 아름다움을 예시한 그 ‘뼈’의 이미지가 21세기에 디지털로 재현되는 것이 무척이나 흥미롭다. 다시 한번 디자인의 본질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표현에서 ‘뼈’를 생각하면 우울한 면도 있다. 흔히 뼈를 묻겠다거나 뼈를 갈아서 했다거나 하는 말을 들을 때면 내 진심, 내가 심혈을 기울였음을 그렇게 무섭게 표현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또 한편으론 절박함도 느낀다. 피할 수 없는 축소, 예컨대 ‘가성비’를 따지고 효율과 경쟁력을 따져서 조직의 인력, 대학의 전공 등 많은 것들을 털어내고 있는 현실의 절박함이 있지 않은가.

문득 오래전에 피에로 가티, 체사레 파올리니, 프랑코 테오도로가 디자인한 <사코^{Sacco}>¹⁹⁶⁸가 생각난다. 흔히 ‘빈백 의자’라고 불리는 것의 원조로 ‘뼈 없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자루같이 생긴 것이 편안한 의자 역할을 하니, 구조가 어떻게 인체 공학이 어찌고 하던 사람들은 무척이나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최근에 인공지능 열풍이 거세게 불지만, 알고리즘을 활용한 디자인은 이미 건축과 디자인 산업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것이 효율성을 따진 ‘최적화’된 결과나 ‘최선’인지는 잘 모르겠다. 일말의 여유도 없이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숭숭 빠져나간 생성적 디자인이 썩 내키지는 않는다. 뼈만 갖고 살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근육도 있고 피부도 있어서 혈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뼈가 상징하는 본질, 효율을 생각하는 오늘날, ‘풍부함’의 미학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 jorislaarman.com

1

2



© zanotta.it

3

4

글 김상규 서울과학기술대 디자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와 국민대 대학원 공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퍼시스 가구연구소에서 의자를 디자인했다. 의자를 비롯한 사물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큐레이팅과 아카이브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 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학생들과 함께 제작 워크숍을 진행하고 쓴다. 저서로는 『의자의 재발견』 『디자인과 도덕』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의자 디자인으로는 파트라에서 생산 중인 'STING' 'SKIN' 'CITY'가 있다.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갔습니다. 연주자들이 무대 위에 입장하고 악장(콘서트마스터)이 박수를 받으며 관객들에게 인사합니다. 이어 오보에가 한 음을 길게 불고, 여러 악기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냅니다. 카오스(대혼란)가 따로 없죠. 앞자리의 꼬마 숙녀가 소곤거립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응, 악기마다 소리 높이가 달라서 하나로 맞추는 거야.” “왜 미리 맞추고 나오지 않아요?” 당연한 의문입니다. 왜 굳이 무대 위에 나와서 소리를 맞추까요.

오케스트라의 튜닝 왜 무대에서 음을 맞추까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나와서 음을 맞추는 것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악기의 음높이가 바뀌기 쉽기 때문입니다. 현악기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무대 뒤와 무대 위는 온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간이 달라지는 순간 미리 맞추고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튜닝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목관 악기인 오보에가 A(라)음을 길게 불면 바이올린을 비롯한 현악기가 먼저 음을 맞추기 시작하고 곧이어 목관 악기, 음량이 큰 금관 악기와 음높이가 정해져 있는 타악기인 팀파니가 소리를 냅니다. 관악기의 경우 관 사이의 연결부를 빼거나 넣어 길이를 조절하는 식으로 소리를 맞춥니다.

왜 다른 악기가 아니라 오보에에 소리를 맞추까요. 꼭 오보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음높이의 기준이 되기 힘든 악기를 하나씩 ‘빼 나가다’ 보면 오보에가 남게 됩니다. 먼저 현악기의 경우 자기 자

신의 음높이가 잘 변하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금관 악기는 세계 불면 어느 정도 음이 높아지는데다 남들이 소리를 다 맞추 때까지 오래 한 음을 끌기도 힘이 듭니다. 아무래도 목관 악기 중 하나가 기준이 돼야 하는데 바순은 소리가 너무 낮고 플루트는 소리가 또렷이 집중되기보다 부드럽게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클라리넷과 오보에가 남는데, 클라리넷은 모차르트 시대에야 오케스트라에 끼어들게 된 ‘후배’ 악기죠. 게다가 오보에 소리는 또렷한 ‘투과력’이 있어 여러 악기가 복잡하게 소리를 맞추는 와중에도 잘 들립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기준음의 영예는 오보에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오보에도 기준을 양보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할 때에는 먼저 악장(콘서트마스터)이 피아노의 A음을 ‘땡’하고 치면 오보에가 그 소리에 맞추고 이어 모든 악기가 이 소리에 음높이를 맞춥니다.

글 유윤종 동아일보 문화전문기자
1996년부터 동아일보 음악전문기자로 일했고 서울시립교향악단 월간지 <SPO> 편집장과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사무국장을 지냈다. 『푸치니』, 『클래식, 비밀과 거짓말』 등의 책을 썼다. 낭만주의 음악의 완숙기로 불리는 19세기 중반 이후의 대편성 관현악과 성악 음악에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다.

왜 피아노를 오보에에 맞추지 않느냐고요? 피아노의 음높이를 새로 맞추려면 88개 건반마다의 음을 모두 건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피아노마저 양보해야 하는 ‘지존’ 악기도 있죠.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이유는? “와, 저 파이프 오르간은 관이 몇 개지?”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기준음의 기준이 궁금해

아직도 궁금증은 남습니다. 오보에가 부는 저 기준음은 무슨 음일까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A’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라’라고 부르는 음높이죠. 계이름은 조마다 달라지니 계이름과 음이름은 구분해야 합니다만,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음이름으로도 ‘라’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A’도 똑같지 않습니다. 바로크 시대나 모차르트 시대의 음악을 그 시대 악기로 연주하는 이른바 ‘고악기’ ‘원전악기’ 악

단의 연주로 모차르트 교향곡 ‘주피터’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 시작하는 음이 악보에 쓰인 ‘C’가 아니라 ‘B’로 들립니다. 반음 더 낮은 것입니다. 이는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음높이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1955년 국제 표준화 기구는 중간 A의 음높이를 440Hz로 결정했습니다. 1초에 440번 진동하는 음높이입니다. 옛날 음높이와의 차이는 옛 음악가들이 사용했던 소리굽쇠를 쳐서 음높이를 측정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헨델이 사용한 소리굽쇠는 A가 422.5Hz이니 오늘날보다 반음 가까이 낮습니다. 하지만 음높이가 통일된 것은 아니어서, 18세기 말에만 한정해도 A음이 400Hz에서 450Hz까지 들쭉날쭉했습니다. 베토벤이 썼던 소리굽쇠를 보면 A음이 455Hz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토벤은 예외적인 경우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음높이는 시대마다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이른바 ‘음높이pitch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음높이를 미세하게 올리면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집중된 듯한 ‘빠릿빠릿한’ 느낌이 납니다. 또 파이프 오르간의 여러 관 소리를 조율하기 위해 관 끝부분을 조금씩 벌리거나 오므렸는데, 그러다가 손상되면 잘라냈습니다. 잘라낼 때마다 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점점 올라가는 음높이에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이는 가수들이었습니다. 소리가 올라가면 목의 부담이 심해지기 때문이었죠. 결국 1834년 독일 의사 협회가 A=440Hz를 표준 음높이로 권고했고 프랑스도 25년 뒤 A=435Hz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음높이는 지역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면 대체로 ‘안정’됐습니다. 옛 음악 연주를 전문으로 하는 오늘날의 앙상블들은 대체로 A=415Hz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A=440Hz보다 대략 반음 낮습니다.

1955년에 A=440Hz의 표준안이 공인된 뒤에도 세계의 많은 악단들은 조금 더 높은 A=442~443Hz를 실제 연주에 적용해왔습니다. 1초에 두 번이나 세 번 더 진동하는 미세한 차이인데도 ‘황금 귀’들에게는 크게 느껴지는 모양이죠. 특히 휘황한 소리를 선호했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시대의 베를린 필은 한 때 A=446 또는 그 이상 올리기도 했습니다. 바로크나 모차르트 시대 음악이 아닌데 A=440Hz보다 낮게 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샤를 뒤투아가 몬트리올 교향악단을 지휘한 생상스 교향곡 3번 ‘오르간’은 A=432Hz를 적용했습니다. 짐작되시죠? 연주에 사용된 파이프 오르간에 맞춘 것입니다. 쿠바의 오케스트라들은 현대 표준 피치보다 약간 낮은 A=436Hz를 사용합니다. 경제난 때문에 현악기의 현을 아끼기 위해서라나요. 소리를 낮추면 현의 장력이 낮아지니 현이 끊어지는 일도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 <우먼 인 골드>와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 잃어버린 황금시대

“유명 작곡가 아르놀트 쇤베르크(1874~1951)와는 정확히 어떤 사이인가?
그분의 음악은 조금 까다로운 구석이 있어.”
변호사 채용 면접장에서 느닷없이 이런 질문이 날아온다.
영화 <우먼 인 골드>의 첫 장면이다.

우먼 인 골드 2015
감독 사이먼 커티스, 출연 헬렌 미렌, 라이언 레이놀즈 외

질문을 받은 변호사 랜들 쇤베르크(라이언 레이놀즈)는 실제로 작곡가 쇤베르크의 친손자다. 작곡가는 1933년 나치의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뒤 서부에 정착했다. 그때부터 독일식 옴라우트가 있던 작곡가의 성도 미국식 Schoenberg 으로 바뀌었다. 영화에서 랜들은 특별한 소송을 의뢰받는다. 나치에 강탈됐던 미술품의 반환을 도와달라는 내용이다. 그 미술품이 구스타프 클림트의 초상화 <우먼 인 골드 Woman in Gold>다. 부유한 유대인 사업가의 아내이자 예술 후원가였던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1881~1925)가 초상화의 모델이다. 클림트의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의 모나리자’로도 불린다. 아델레와 남편 페르디난트의 살롱은 클림트뿐 아니라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건축가 오토 바그너와 작가 프란츠 베르펠 등이 드나들었던 빈의 문화 명소였다. 아델레는 1907년 완성된 <우먼 인 골드>뿐 아니라 1912년 또 하나의 초상화에서도 모델이

됐다. 클림트는 평생 많은 여성들의 초상화를 그렸지만, 두 차례 이상 같은 모델을 그린 경우는 아델레가 유일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모나리자’는 완성 이후에도 기구한 운명이었다. 아델레는 1925년 먼저 세상을 떠났고, 1938년 독일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병합하자 남편 페르디난트는 재산과 소장품을 모두 남겨둔 채 스위스로 피신했다. 결국, 이 그림들은 나치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종전 이후에는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소장하고 있었다. 영화에서 이들 부부의 조카딸 마리아 알트먼(헬렌 미렌)이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한 뒤 “숙모님을 만나 뵈러 벨베데레 미술관에 가야겠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리아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 랜들이 이 그림들의 반환 소송에 나서 는 것이 영화의 출발점이다. <우먼 인 골드>는 무엇보다도 두 가족사가 얹힌 실화이자 예술가와 미술품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였다. 랜들의 대사처럼 “우리 가족과 그 뿌리는 빈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영화는 나치의 핍박으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diaspora)에 대한 기록이기도 했다.

영화는 별다른 윤색이나 과장 없이 대체로 소송 과정을 충실하게 따라간다. 오스트리아는 나치 독일에 병합된 뒤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박해했던 어두운 현대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소송을 돕는 오스트리아 탐사 보도 기자 후베르투스 체르닌(다니엘 브렐)의 대사처럼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 그림은 오스트리아의 정체성에 뿌리 박혀 국가적 상징’이 됐다. 작곡가 쇤베르크나 초상화의 모델이었던 아델레 같은 유대인들은 오스트리아 역사의 일부일까, 아닐까. 미술품의 소유권을 둘러싼 공방 이면에 있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야말로 영화를 끌고 가는 동력이다.

약탈 문화재 반환은 피해 이전으로 상황을 되돌린다는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해결이 손쉬운 것은 아니다. 사후에 책임을 묻는 소급 적용이라는 논쟁의 불씨가 남아 있고 자칫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의 끝에서는 해피 엔딩이 기다린다. 2004년 미 연방 대법원은 알트먼과 오스트리아 정부의 소송에서 알트먼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약탈 문화재 반환의 역사에도 기념비적 사건으로 남았다.

마리아의 영화 대사처럼 “숙모님(아델레의 초상화)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 운명”이 됐다. 결국, 미국으로 건너간 <우먼 인 골드>는 2006년 경매에서 1억5000만 달러에 낙찰되어 뉴욕 노이에 갤러리로 동지를 옮겼다. 마리아와 랜들은 낙찰액 일부를 로스앤젤레스의 홀로코스트 박물관 후원에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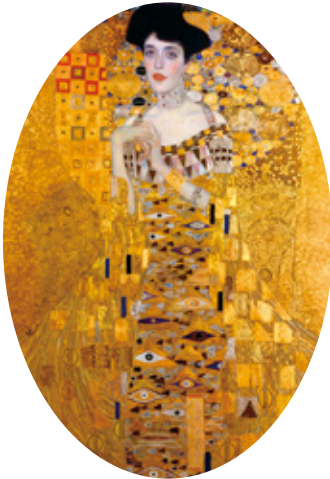
영화에서 오스트리아 출장을 떠난 변호사 랜들이 빈의 콘체르트하우

스에서 듣는 곡이 할아버지 쇤베르크의 1899년 초기작인 현악 6중주 <정화된 밤>이다. 1899년은 빈에서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을 출간하고 클림트가 <피아노 앞의 슈베르트>를 그린 해였다. 세기말 빈의 예술은 모든 장르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만개하고 있었다.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은 독일 시인 리하르트 데멜의 동명 시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 작품에서는 무조(無調) 음악이나 12음 기법 이전의 후기 낭만주의적 색채가 물씬 풍긴다. 데멜의 시는 한밤에 숲 속을 거닐던 두 남녀의 대화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들의 대화는 예상을 거둬 빗나간다. 우선 여인은 연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이 말을 듣던 남자는 “온기가 낮선 이의 아이를 정화할 거요. 당신이 아이를 낳고 내가 돌볼 것”이라고 거꾸로 위로한다. 그래서 제목도 <정화된 밤>이다. 이처럼 데멜의 시에는 사랑과 불륜, 화해와 용서가 공존한다.

작곡 당시만 해도 쇤베르크는 자신이 훗날 현대음악의 혁명가이자 개척자가 될 줄은 짐작할 수 없었을 터, 마찬가지로 나치 집권 이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미국에서 눈감을 운명이라고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영화에서는 두 차례 전쟁을 겪기 이전 세기말 빈의 아름다웠던 시절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클림트의 초상화도, 작곡가 쇤베르크도 결국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다.

1 영화 <우먼 인 골드>
2 오스트리아의 모나리자로 불리는 클림트의 <우먼 인 골드>



글 김성현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 사진 제공 팝엔터테인먼트
지휘자 사이먼 래틀과 바렌보임의 전기를 번역했고 『365일 유럽 클래식 기행』, 『시네마 클래식』, 『모차르트』, 『마이클 클래식』, 『씨네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다. 다양한 강연과 해설 무대는 물론, 유튜브 채널 ‘클래식 토크’를 통해 클래식과 대중의 간극을 줄여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도시와 건축공간, 회복도시에 대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한 도시 건축 디자인 전략

Recovery City



현대도시에서는 인구 과밀, 물리적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 복잡한 도시 생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에 시달리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은 이동 제한, 마스크 착용 및 강제 격리 등으로 인류의 삶을 더욱 힘들게 했다. 지난 몇 년간 상상 이상의 것을 경험한 인류는 이제 가까운 미래에도 유사한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 도시 내 물리적 환경을 디자인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그동안 디자인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디자인 분야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팬데믹과 관련한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공간’의 취약 요소

먼저 도시 내에 존재하는 감염병의 주요 취약 요소들을 알아 본다. 첫째, 물리적 측면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일수록 사람 간의 접촉 빈도가 높아진다. 도시밀도가 높고 도로망,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춰진 도시일수록 감염 위험도가 커지는 건 자명하다. 타 도시와의 교통 연결성 및 이동성에 의한 지역적·광역적 확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 양질의 의료 서비스

는 사망률을 감소시키지만 반대로 다중 의료 시설 및 서비스는 또 다른 밀접 접촉 공간이 되어 감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다. 즉, 밀폐된 실내 공간은 그 어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 고령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경제력과 교육 수준에 따라서 감염률에 변화를 보이는 인구 구조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 계층일수록 감염병에 의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1, 2 건축공간 내에 존재하는 감염병 취약 요소 감소를 위해서는 세면대 등 개인 위생 시설 설치, 접촉 없이 사용 가능한 센서형 화장실 등의 조성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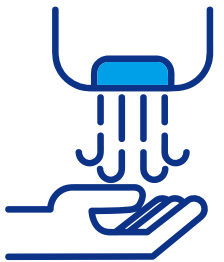
을 더 크게 느끼며 팬데믹의 확산에 큰 타격을 받는다. 이로써 도시 경제 및 상업 기능이 빠르게 쇠퇴하면서 록다운(lock-down)이 되고 만다. 세 번째는 환경적 측면이다. 통계적으로 대기오염과 공기의 질은 감염률 및 사망률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특히 풍속이 느릴수록 공기 질이 하락하고 그로 인해 감염률이 높아져 바람의 순환이 매우 중요하다. 수질 오염 및 미비한 폐수 관리도 감염병 확산을 촉진하는 만큼, 수자원의 질도 취약 요소로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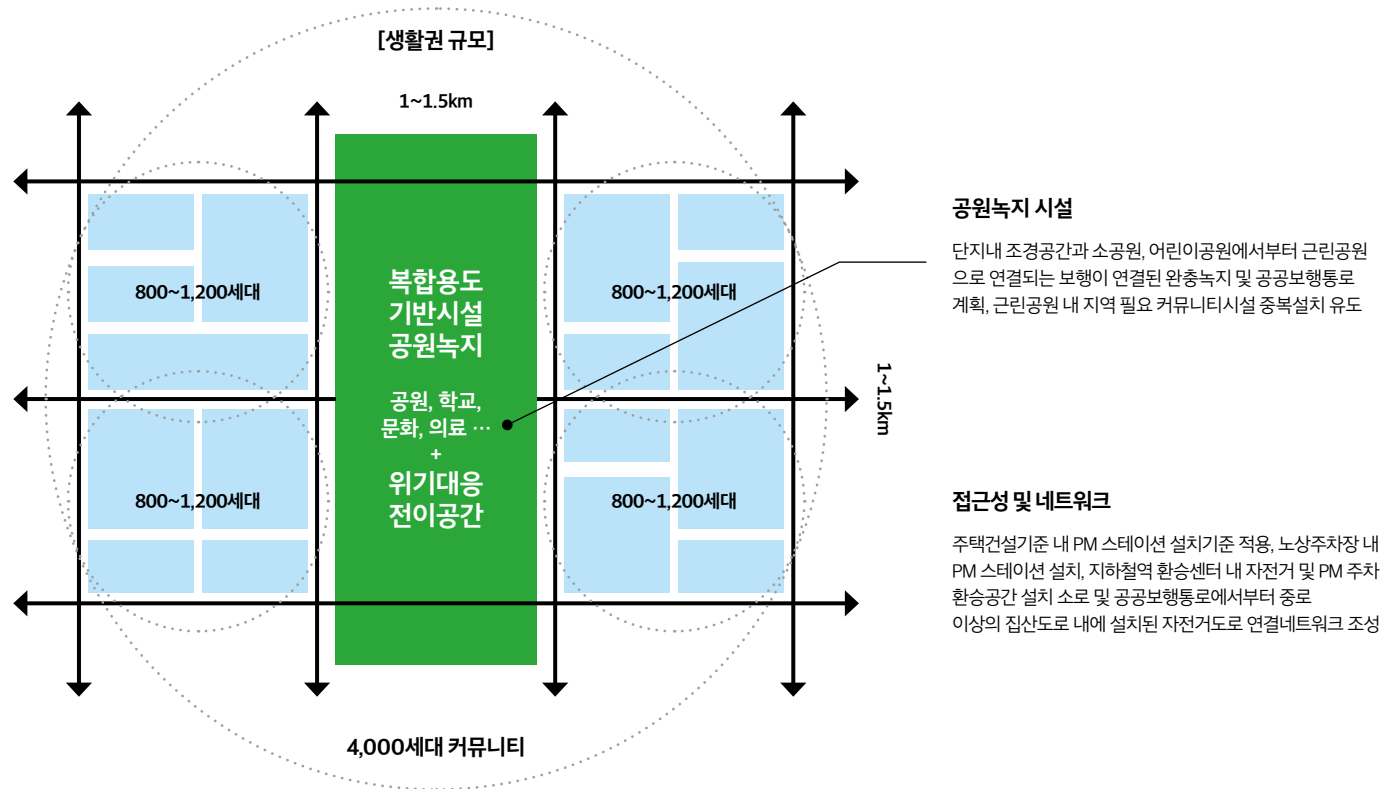
도시공간을 위한 디자인 전략

위의 요소들에 대응이 미비할 경우에 감염병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 및 디자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도시밀도 및 토지 이용 부문이다. 감염병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 인구 밀집이 일어나는 다중·대형 시

설 이용에 대한 기피가 나타나 한적한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 따라서 감염병 대응에 맞추어 공원녹지 등 기존 토지 이용을 유연하게 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및 공공서비스 부문이다. 폐쇄된 공간에서 밀집된 형태로 이용하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따릉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이 늘어난다. 또한, 온라인





<10분 생활권 개념의 예시>

공원녹지 시설

단지내 조경공간과 소공원, 어린이공원에서부터 근린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이 연결된 완충녹지 및 공공보행통로 계획, 근린공원 내 지역 필요 커뮤니티시설 중복설치 유도

접근성 및 네트워크

주택건설기준 내 PM 스테이션 설치기준 적용, 노상주차장 내 PM 스테이션 설치, 지하철역 환승센터 내 자전거 및 PM 주차 환승공간 설치 소로 및 공공보행통로에서부터 중로 이상의 집산도로 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로 연결네트워크 조성

쇼핑 등 비대면 소비의 지속으로 택배 등 물류 운송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시설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확보를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에서의 방역 의무화, 저소득층·홀몸어르신 등 감염병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서비스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세 번째, 기초생활 인프라 부문이다.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 경험했듯 감염병 확산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병상·인력 부족과 같은 의료 체계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때, 약국과 같은 기초생활 인프라를 통한 생활방역물품·의료용품의 지역적 지원 및 공급이 필요하다. 더불어, 공공시설 외부공간을 활용한 인구밀도 분산, 감염병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외부시설 조성 역시

중요하다. 또 홀몸어르신뿐 아니라 육아 문제 또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긴급돌봄서비스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용률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인프라 부문이다. 이번 팬데믹을 통해 스마트 인프라도 바뀌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온라인 쇼핑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현상이 발생했고 열화상 카메라, 출입자 확인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디지털 설비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감염자 동선 DB, 기초 방역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디지털 기반 정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공공 보건 정책, 도시민 일상생활 지원 등의 분야에 스마트 인프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건축공간’의 취약 요소

건축공간 내에 존재하는 감염병 취약성 감소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고밀도 공간 내 혼잡은 집단감염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다중이용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통제가 어려워 감염병의 지역적·광역적 확산을 유발한다. 또한 공동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표면 접촉에 따른 감염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공간 이용 특성이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공간 분리 및 구획화를 통해 공간 간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감염병 상황 시 감염/비감염 구역 간의 구분과 분리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 특정 출입구나 이동 통로를 다중 인

원의 주요 동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며, 녹지공간 및 오픈 스페이스 등을 감염병에 대응하는 완충 녹지로 활용한다. 이는 항원의 공간적 확산 억제는 물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활동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 물리적 공간구조에 대한 특성 분석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건축공간 내 위생을 증진함으로써 초기에 항원 차단을 도모한다. 방역과 소독으로 표면 위 항원을 제거하고, 실내 공간의 원활한 통풍·환기를 통해 깨끗한 공기의 지속적인 유입을 유도하면서 공기 중 항원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다. 감염병 항원이 공기 중에서 생존하기 힘든 온습도 조건을 유지해, 감염병 확산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실내환경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

건축공간을 위한 디자인 전략

이와 같은 건축공간 요소의 취약성 관련 대응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공간 내 밀도·혼잡을 줄이고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간 안전거리(예: 2m) 등이 충분히 확보되는 공간을 조성한다.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소독 시설 등 개인 위생 시설 설치를 통해 개인 위생환경을 증진하고, 이용자 출입과 개인 건강상태 확인, 감염의심자의 신속한 선별과 동선 체크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내공조 설비 설치를 통한 적정 온습도 및 환기·통풍이 용이한 실내 환경 조성, 이용자 통행 패턴을 고려하여 사람들의 접촉을 차단하고 감염병 통제가 용이하도록 동선 분리가 되는 공간 구조 조성 역시 필요하다. 감염병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감염의심자 격리공간 확보, 자동 손 소독시설 등 물체에 접촉하는 방식을 최소화한 감염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설계의 새로운 과제들

도시가 가진 풍요로움과 편리성으로 인해 새로운 인구가 도시로 꾸준히 유입되면서, 그간의 전통적인 도시설계 방식은 도시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시설 확충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등 안전하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도시의 핫스팟이나 쇼핑 물은 한데 모여 있을 바라는 양면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생적이고 쾌적한 공동체 공간, 편리성이 확보된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욕망도 커진 것이다. 특히 자신의 집에서 10~15분 이내인 지역생활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는 심리로 커지면서 이에 맞춘 도시설계 패러다임도 빠르게 변화 중이다.

도시는 종종 이것저것 뒤섞인 비범법으로 비유되곤 하지만, 도시적 관점에서의 팬데믹은 각각의 음식 재료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시의 삶 속에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한 것이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는 감염병에 대한 도시공간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기존의 불평등한 도시 환경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 계층, 정원 없이 고밀도화된 주택 거주자, 직업상 대면이 필수적인 근로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바이러스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정부의 안전문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외롭게 지내는 홀몸어르신이나 돌봄이 필수적인 기저질환 환자들 역시 팬데믹의 피해 대상이 되었다. 즉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공간이 특정 계층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각과 도시 회복성의 부재를 일깨워준 것이다.

회복도시Restorative City에 대하여

영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공중보건 및 건강 시스템 전문가인 레일라 매케이(Layla McCay)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회복도시Restorative City’라는 패러다임을 자신의 책 『회복의 도시: 정신 건강과 웰빙을 위한 도시 디자인Restorative Cities: Urban Design for Mental Health and Wellbeing』에서 제안했다. 회복도시란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회 속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도시의 공공공간과 물리적 환경이 건강 형평성을 발전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러한 도시는 장소와 건강 간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전통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외부 충격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간다. 또한 사람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회복도시’의 구현이 아닐까. 코로나19로 인한 경험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 안에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우고, 외부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회복도시’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 노력에 함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누구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회 속에서 건강할 수 있는 도시, 미래의 회복도시를 위한 고민과 실천이 더욱욱 절실한 때다.

글 **이제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사·석사,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도시설계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부터 LH공사에서 근무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도시설계 교수로 재직 중이다. 11대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을 역임, 중앙 부처 및 지방 부처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도시 및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다수의 프로젝트에서 총괄 도시설계가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도시설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실천』 『도시설계를 위한 스마트언어: A to Z』 등이 있다.

성남아트센터 마티네콘서트

ITALIAN STYLE

4월 20일 (목) / 바로크 음악의 심장, 이탈리아

카메라타 안티와 서울, 리더 김지영,
리코더 허영진, 오보에 신용천, 소프라노 신은혜, 카운터테너 장정권

코렐리	합주협주곡 D장조
비발디	리코더 협주곡 D장조 '홍방울새'
제미니아니	합주협주곡 D단조 '라 폴리아'
페르골레시	'스타바트 마테르'

5월 18일 (목) / 벨칸토 시대의 오케스트라

성남시립교향악단, 지휘 정나라, 바이올린 박수예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로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오페라 <라 체네렌톨라> 서곡
	오페라 <도둑까지> 서곡

INSIDE SEONGNAM

66

예술가의 작업실

꽃으로 피어나는
삶의 여정을 기록하며
신미선 작가

72

SNART NEWS

76

캘린더



꽃으로 피어나는 삶의 여정을 기록하며

신미선 작가

중년의 작가는 삶을 관조하고 묵상하며 캔버스를 채웠다. 삶의 복잡한 문제와 고민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니 제각각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다. 인생의 유한함과 그 속에서 찾는 의미는 2023 성남중진작가전의 첫 번째 주자인 신미선 작가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전하는 위로다.

2023 성남중진작가전의 첫 번째 순서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참여하시는 소감을 들려주세요.

성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많은데 그들이 누구이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 시민 여러분께 소개하는 자리가 성남중진작가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신미선이라는 작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성남문화재단 측에 감사드립니다.

전시 테마로 ‘여행자의 시간’을 설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2년에 ‘여행자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열었고, 올해에는 작년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여행자의 시간’을 다루려고 해요. 작가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다 보니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고민과 같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여행과도 같은 인생 여정에 관한 이야기로 모두와 공감대를 쌓고 싶었습니다. 여행자가 시선을 가진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이번 전시에서는 여행자가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시간을 더욱 구체화하고 싶었습니다. 다녀온 여행지의 기록이자, 오늘을 사는 나의 시간은 어떠한지, 내일을 살아갈 힘은 무엇인지 성찰하는 작업입니다.

전시에서 약 30점의 작품을 소개하시는데 구성의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린 <로고스 채널 Logos Channel> 시리즈, <엑소더스_더 웨이 Exodus_The Way> 시리즈, <존 버니언과의 대화> 시리즈를 중심으로 구성하려고 해요. 이와 함께 2층에서는 그림일기처럼 저의 인생을 관찰자로서 기록한 작품들을 소개하고요. 나라는 존재는 비록 이름 없는 한 인간일지라도 삶은 보편적이기

Shin Mi Sun

내게 주어진 숙명을 받아들이고
하늘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을 닮고 싶다는
의미에서 인생을 꽃에 비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하루하루의 기록이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해요. 결국 전시 테마인 ‘여행자의 시간’은 기록으로 농축된 시간이에요. 내 삶의 여정을 농축하고 집약한 기록으로 전시를 구성하고 싶었습니다.

삶의 방향과 의미라는 주제를 주목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중년을 지나면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을 때에는 많은 사건을 겪고, 여성으로서 결혼과 육아와 작업을 병행하면서 힘들었거든요. 그때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고 느꼈어요. 시간이 없어서 작업을 못 하면 조바심에 짜증도 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무의미하다거나 때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죠. 그런 인생을 돌아보니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에게도 얘기했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생기면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자고요. 제삼자의 시선으로 보고 주어진 일을 일단 감당하면 수월하거나 즐겁지는 않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생각에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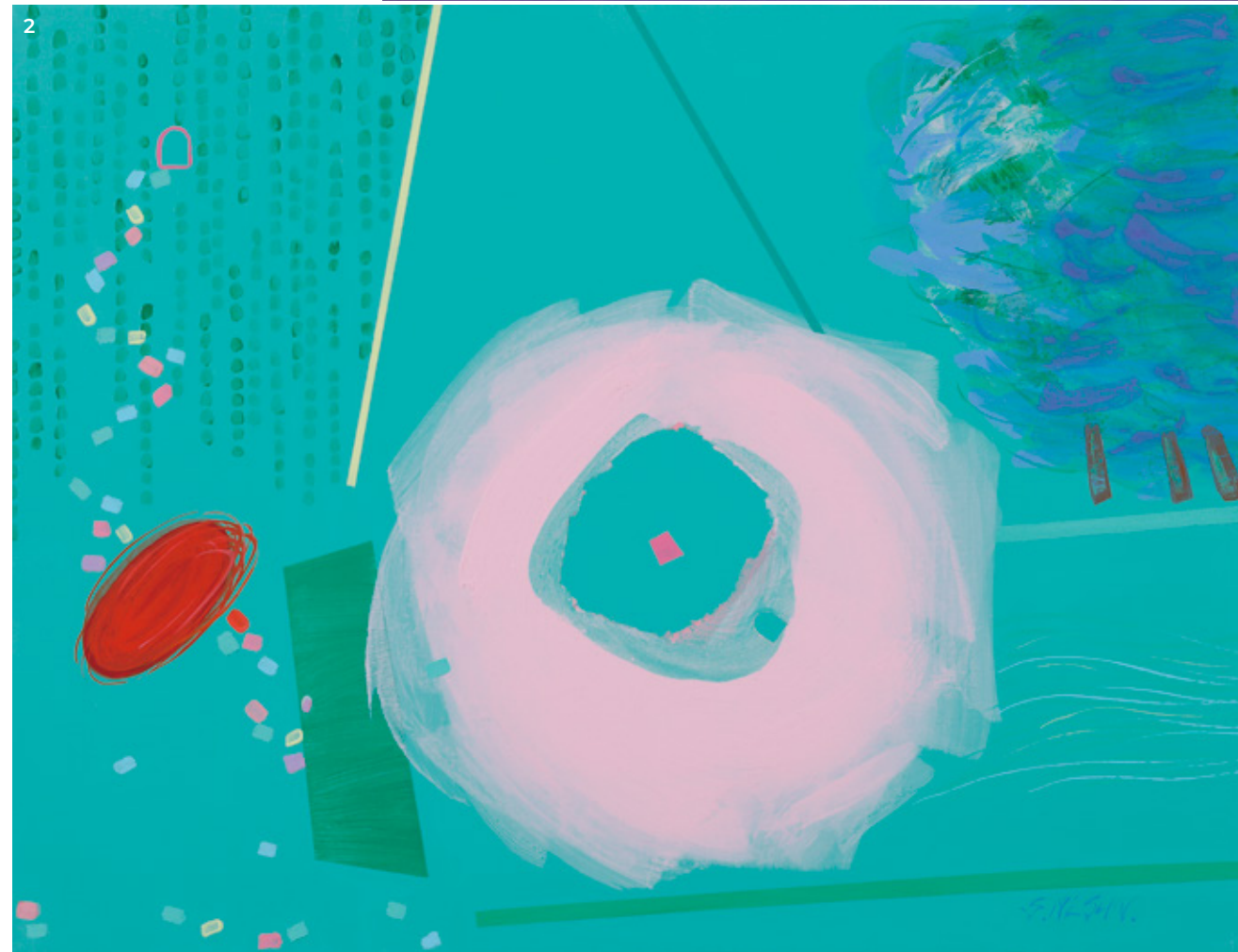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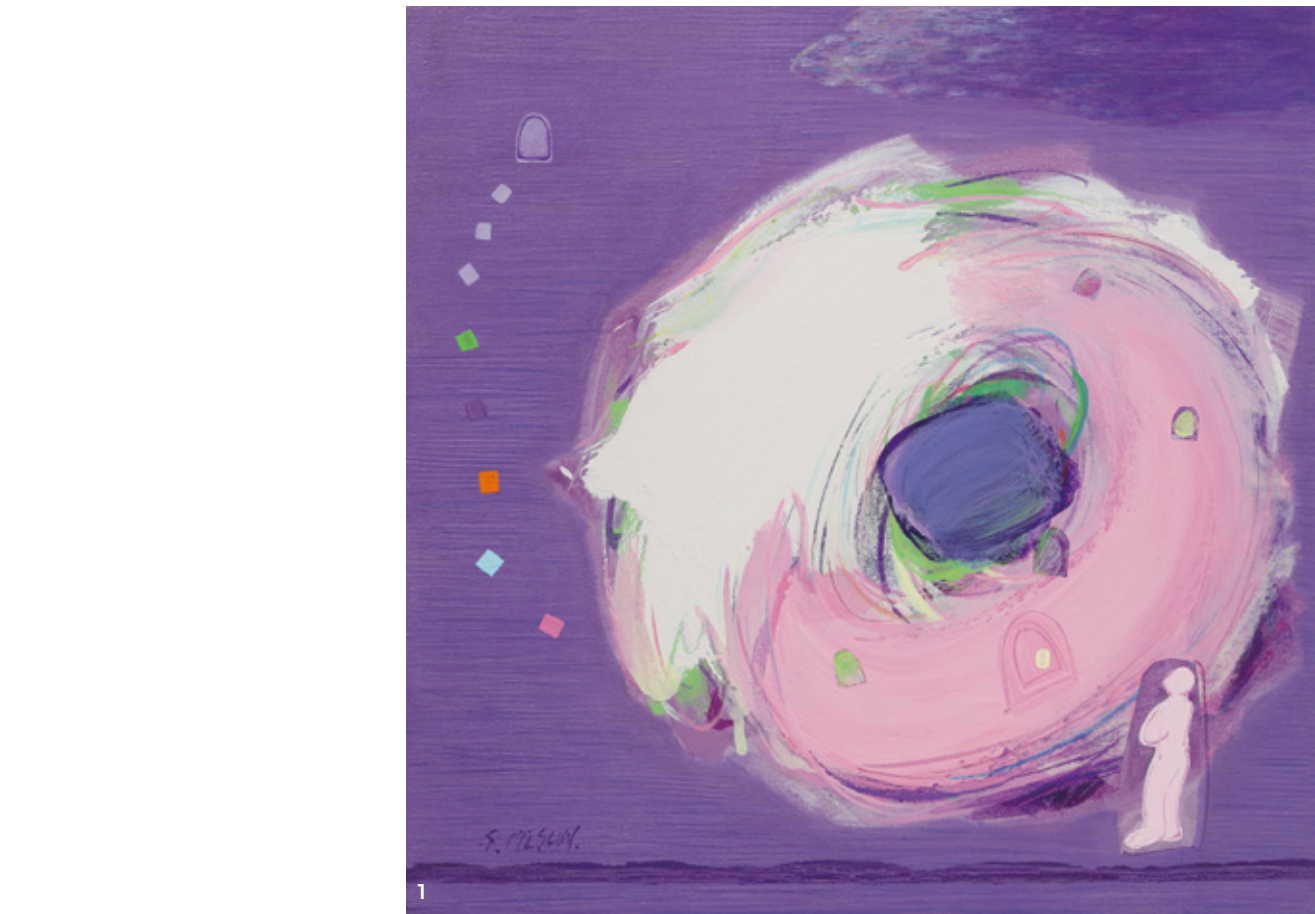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작업에도 반영됐나요?

작가로서 좋은 작업을 하려고 항상 전전긍긍했어요. 그런 생각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의도와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작업도 인생과 마찬가지로요. 이 길이 맞는지 고민해서 구상하고 크로키하고 시도해보면, 생각대로 될 때도 있지만 막히기도 하고 풀리지 않을 때도 많지요. 실수한 기법들이 쌓여서 좋게 나오기도 했어요. 작품도 필연적인 우연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 거예요.

21번의 묵상으로 그리셨다는 <로고스 채널 Logos Channel>의 작업 방식이 더 궁금해집니다.

성경 「요한복음」을 시각화한 작품이 <로고스 채널>이에요. 텍스트를 시각화하는 작업에 관해서는 논문도 준비 중인데요, 스토리를 요약하거나 특정 장면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텍스트를 통해 떠오른 이미지 혹은 의미 전체를 한 화면에 담아내기 위해 반복적인 방법을 사용했어

- 1 John Bunyan과의 대화_04,
37.9x37.9cm, Acrylic on canvas, 2022
2 Logos Channel, 20.5_B, 53.0x40.9cm,
Acrylic on canvas, 2020



요. 「요한복음」이 21개의 장으로 돼 있어서 21번을 덧칠하는 과정이었지요. 캔버스 옆면을 보면 연필로 21번까지 적어둔 숫자가 있어요. 젯소 칠 같은 밀 작업을 해둔 상태에서 바탕 작업을 거둬했는데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번 칠하고 1번이라 기록하고, 두 번째 칠하고 2번을 기록하고, 그렇게 21번을 묵상하면서 완성했습니다. 「창세기」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구절이 있어요. 말씀에서 색과 형상이 나왔다는 의미를 나도 새기면서 표현해보자는 의도였어요.

색과 형상에 관해 듣고 싶습니다. 우선, 꽃을 즐겨 그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하신 의미를 생각하는데, 꽃은 창조된 것들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요. 사람이 돌보지 않아도 물과 바람과 햇빛이 있으면 정해진 자리에서 피어나요. 씨앗일 때에는 미약하지만 이름 모를 들꽃이든 화려한 꽃이든 다양한 모습으로 피어나는 게 너무 신기하면서 귀하게 느껴지고 인간의 다양한 삶을 보는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숙명을 받아들이고 하늘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을 닮고 싶다는 의미에서 인생을 꽃에 비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하늘을 향한 노래> 같은 제목의 작품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비해 꽃의 형태가 단순해지고 색채도 차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구상적 표현이 많았습니다. 한 화면에 꽃 전체를 그리거나 반사실적으로 화려한 색채를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꽃을 의인화·객관화하면서 지금 형태로 바뀌었어요. 꽃을 계속 그리다 보니 인생을 비유한다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기보다는 보편적인 형태가 더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에게 꽃을 그려보라고 하면 대개는 단순한 형태가 나와요. 저도 예전에는 꽃을 잘 그리려고 몰두했다면 지금은 점점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누구나 원형처럼 아는 형태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색채에 관해서는 모든 색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다만 전에는 감정의 대담성을 중시했다면 지금은 사색적이에요. 강렬하고 대담한 감정을 실어서 마음껏 표출하다가 관조하는 태도가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꽃이라는 행성이 우주 속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관조하고 인생을 묵상하듯 작업하다 보니 색채가 차분해지더라고요.

<로고스 채널>에서부터 이어지는 작품들에 그 꽃과 함께 많은 기호와 도형들이 등장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공간이자 가장 아늑한 장소인 집을 그리고, 집과 결부된 인생 여정을 꽃으로 표현했어요. <로고스 채널> 속 7개의 문은 여정의 통과 지점이에요. 입시, 취업, 결혼, 죽음 등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관문들이지요. 힘들어도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고, 그 문을 통과함으로써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꽃에 가까이 다가온 거대한 타원형은 네모나고 작은 조각들을 품은 생명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존 버니언과의 대화> 시리즈는 처음으로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정신없이 추상을 공부하고 작업했기 때문에 구상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구상과 형태에 관한 완전한 만족감이 없었지요. 색상과 형태가 이렇게 다양한데 만족할 만큼 해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구상을 공부하게 됐고 어느 시점부터는 추상과 구상을 접목하기 시작했어요. 인물을 오래 공부하면서도 작업에 접목한 적이 없었는데 <존 버니언과의 대화> 시리즈에서 시도했습니다. 이 인물은 여행자인 내 모습이고, 보편적인 인간 존재이기도 해요. 꽃이라는 행성, 인생 여정을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이에요.

존 버니언은 「천로역정」으로 알려진 작가인데요, 『상한 심령으로 서라』라는 저서에서 영감을 얻으셨다고요?

<존 버니언과의 대화>는 성경 「레위기」에서 출발했어요. 「레위기」에는 구약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상한 심령의 예배자가 올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상한 심령의 예배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하다가 존 버니언의 『상한 심령으로 서라』라는 책에 닿았고, 저자와 대화하듯이 탐색하며 그린 작품이 <존 버니언과의 대화> 시리즈예요. 어릴 때에는 상한 심령이란 우울하고 거룩한 무언가라고 생각했어요. 30대 때에는 다른 사람보다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 줄 알고 화장도 안 하고 지냈어요(웃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미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서 예배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잘나든 못나든 인간이다, 인간은 각자의 역할을 할 뿐이다, 마치 꽃처럼 하루 살이이든, 해마다 피어나든 역할자로서의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상한 심령을 가진 인간이라는 깨달음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도 구하셨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많은 죽음과 맞닥뜨렸어요. 외할머니, 다섯 살 조카, 친언니, 친정아버지, 최근에는 친언니와도 같았던 선배 작가까지 갑작스러운 죽음의 순간을요. 인

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은 코앞에 와 있다고 느꼈고 나는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힘들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분들 모두가 아마도 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내게 주어졌으니 열심히 사는 것만이 떠난 사람들에게 대한 예의 아닐까요. 과거는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어요.

전시를 꼭 보여주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특정인보다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떠올라요. 슬프거나 아픈 분들, 그림을 통해 정신적인 쉼을 얻고 싶은 분들어요. 제가 작품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미술은 어렵고 작가는 멀다고 여기지 마시고, 동네 사람과 커피 한 잔 함께하듯 가볍게 보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신미선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와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졸업 전 약력 수원대학교 객원교수·성남미술협회 회장, 현 이화기독교미술인회 회장·기독교협 부회장·김영모갤러리 관장, 한국여류화가협회·아시아미술가회·창작미술협회 회원 수상 성남미술상대상·한국예총회장상·성남예총회장상, 기독교미술대전 우수상 2회·경기미술대전 기획 영원한 생명전·소근대는 선전·자유로운 休전·빛을 품은 나무전, 여행자의 시선전·동동교전·동동몽블랑전·23그림편지전, 전시 개인전 20회, 그룹전 200여 회 아트페어 성남·홍콩·대구·인천아시아아트쇼·부산 아시아호텔 아트페어, 한국구상대제전·마니프 아트서울 외 다수





성남문화재단, 제7대 서정림 대표이사 취임



성남문화재단 제7대 대표이사에 공연기획자 서정림 림에이엠시(Lim-AMC) 대표가 취임했다.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1월, 신입 대표이사 채용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고 추천위원회를 구성, 서류와 면접 심사 후 이사회를 통해 서정림 신입 대표이사를 내정했다. 서정림 대표이사는 3월 2일(목), 임명장을 받고 앞으로 2년간 성남문화재단을 이끌게 됐다.

서 대표이사는 경희대학교에서 무용학을 전공한 후 일본 도쿄학예대학 대학원에서 조형예술학·연극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경희대학교에서 예술경영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제 문화행사 기획 및 교류사업을 진행하며 종합예술인으로 활동한 서 대표이사는 2007년부터 문화예술기획사 림에이엠시(Lim-AMC) 대표를 역임한 공연예술 전문가다.

특히 2006년과 2007년 성남국제무용제 사무국장 및 제작감독을 역임했고, 2008년에는 중국 장예모 감독이 연출한 중국국립발레단 <홍등>의 성남아트센터 초연 및 국내 투어를 총괄했으며 성남아트센터 후원회원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성남문화재단과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정림 신입 대표이사는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성남문화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 진 숙 박 주 영 이 돈 순 이 체 린 정 석 희 최 지 원

모호한 경계

2023.2.17(금) - 6.25(일)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성남문화재단 & 광주광역시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업무협약



성남문화재단과 광주광역시의 지역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청년예술가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2월 23일(목) 오후 2시, 광주광역시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에서 협약식을 진행하고, 지역과 거리의 경계를 넘은 유기적 협력 구축과 다양한 콘텐츠 교류 등을 약속했다.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은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모든 문화 활동을 허용하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의미로, 광주광역시 양림동의 다양한 역사 스토리들이 지역작가들과 만나 새롭게 탄생할 작품들을 소개하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지난해 광주광역시 이강하미술관과 대구문화재단과도 지역예술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성남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작가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전시기획 프로젝트로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에는 광주와 대구 두 도시 예술가들을 초청해 성남지역 예술가들과의 합동 전시를 성남아트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7월에는 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신흥공공예술창작소 입주작가의 초대전도 추진하려 한다. 이를 통해 지역예술가들에게 새로운 만남과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응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미디어센터에서 예술영화를 만나다



성남미디어센터가 엄선한 예술영화 상영회가 올해 상반기에도 다양한 작품으로 시민을 만난다. 먼저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독립예술영화관>은 국내외 주요 영화제에서 작품성과 완성도를 검증받은 작품, 개인의 삶과 이와 연계된 사회문제를 넓은 시선으로 풀어나간 작품을 선택한다. 4월 <코르사주> <가가린> <시간을 꿈꾸는 소녀> <애프터썬>, 5월 <이마 베프> <단순한 열정> <새를 사랑한 화가> <안녕, 소중한 사람>까지 총 8편의 영화를 선보인다.

무속인이 될 운명을 타고났지만 그 미래를 바꾸고 싶은 소녀 '수진'의 이야기를 그린 박혁지 감독의 다큐멘터리 <시간을 꿈꾸는 소녀>(4월 19일 오후 2시)는 누구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선택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라는 측면에서도 보편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작품이다. 상영회 후 박혁지 감독, 권수진 출연자와 함께하는 GV가 진행 예정으로, 작품 안에서 미처 담아내지 못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 기대된다. <독립예술영화관>은 국내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한 4,000원의 유료 관람료가 책정되며,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예매 및 미디어홀 현장 발권 모두 가능하다.

성남미디어센터의 '영화읽기 모임' 회원들이 엄선한 무료 상영회 <큐브영화관>은 4월의 목요일마다 찾아온다. <사랑 후의 두 여자> <천리 주단기> <바람아 안개를 걷어가다> <칠드런 액트>까지, '인생'의 의미를 다채로운 시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작품을 골랐다. 상영 후에는 '영화읽기 모임' 회원들과 영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며, 상영일 2주 전부터 성남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람 신청이 가능하다. <독립예술영화관> <큐브영화관> 모두 성남아트센터 큐브폴라자 미디어홀에서 상영이 진행된다. 그 밖에도 가족들을 위한 야외 무료 상영회인 <패밀리 영화관>도 5월 초 시민들을 찾아올 예정이다.

문의 성남미디어센터 031-724-8359

성남아트리움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Dear Heart*



Y U H K I K U R A M O T O C O N C E R T

2023.5.20.SAT.4:00PM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티켓 R석 6만원 | S석 4만원 | 시야제한석 2만원 |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 문의 031-783-8000

SNART Calendar		2023. 4		April	
㉠ 오페라하우스 ㉡ 콘서트홀 ㉢ 앙상블시어터 ㉣ 성남아트리움 ㉤ 큐브플라자 미디어홀 ■ 성남문화재단 기획 프로그램					
M	T	W	T	F	S
					1 ㉠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14:00, 19:00) ㉡ 테헤란밸리심포니오케스트라 봄 정기연주회(17:00) ㉢ 빠씨오네보체 정기연주회(17:00) ㉣ 가족뮤지컬 <고고다이노:우리동네공룡>(11:00, 14:00, 16:30)
3	4	5 ㉠■ 독립예술영화관 <코르사주>(14:00)	6 ㉢ 정상희 바이올린 독주회 -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 시리즈 3(19:30) ㉠■ 큐브영화관 <사랑 후의 두 여자>(19:00)	7 ㉢ 임지연 피아노 독주회 2(19:30)	8 ㉠ 뮤지컬 시즌5 <신비아파트: 감염된 도시의 비밀>(11:00, 14:00, 16:30) ㉢ Centrepia 창단연주회- 다시 봄(17:00)
10	11 ㉡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19:30)	12 ㉠■ 독립예술영화관 <가가린>(19:00)	13 ㉡ 성남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 성남시립예술단 동별 찾아가는 공연 '쇼케이시'(18:00) ㉠■ 큐브영화관 <천리주단기>(19:00)	14	15 ㉢ 남진 콘서트(14:00, 18:00) ㉡ 서울시민교향악단 정기연주회(17:00) ㉢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예선대회(15:00) ㉣ 공룡애니멀쇼(11:00, 14:00, 16:00)
17	18	19 ㉢ 조영호 콘트라베이스 독주회(19:30) ㉠■ 독립예술영화관 <시간을 꿈꾸는 소녀>(14:00)	20 ㉡■ 마티네 콘서트 (11:00) ㉢ 방지영 클래식 연주회 (19:30) ㉠■ 큐브영화관 <바람아 안개를 걷어가다>(19:00)	21 ㉢ 임지연 피아노 독주회 3 (19:30)	22 ㉠ 이찬원 전국투어 콘서트 'ONE DAY'(18:00) ㉡ a poco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7:00) ㉢ 오르페오 앙상블 소사이어티(17:00) ㉠■ 작곡가 시리즈:남만주의 1. 라흐마니노프(17:00)
24	25	26 ㉡ 성남시립교향악단 <금난새의 오페라 이야기>(19:30) ㉣ 마지막 병동 (14:00) ㉠■ 독립예술영화관 <애프터썬>(19:00)	27 ㉣ 마지막 병동 (14:00) ㉠■ 큐브영화관 <칠드런 액트>(19:00)	28 ㉠ 다나카 전국투어 콘서트 (20:00) ㉡ 오르디앙상블 연주 시리즈 3(19:30) ㉣ 마지막 병동 (14:00)	29 ㉠ 다나카 전국투어 콘서트 (18:00) ㉡ 제이엘 체임버라이어 정기연주회(19:30) ㉢■ 연극만원<북길잡화점>(14:00, 18:00)
					30 ㉡ 더퍼스트 뮤직 in 슬램덩크(17:00) ㉢ 베누스토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7:00) ㉢■ 연극만원<북길잡화점>(14:00, 18:00)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		
전시 명	전시 기간	장 소
■ 2023 동시대이슈전 <헬로! 펫, 또 하나의 가족>	4.7 - 6.25	기획전시실
■ 성남창년작가전 1 <박춘화: 길을 가는 동안>	2.17 - 4.2	반달갤러리
■ 성남중진작가전 1 <신미선: 여행자의 시간>	4.14 - 6.11	반달갤러리
■ 2022 신소장품전 <모호한 경계>	2.17 - 6.25	상설전시실

* 전시 관람 시간 10:00-18:00 (월요일 휴관)

갤러리808	
전시 명	전시 기간
제8회 더불어전시회	3.24 - 4.1
외곽풍경 Outskirts Scenery	4.7 - 4.14
그림읽기 그룹전	4.7 - 4.16
경기향토작가 초대전	4.22 - 4.29
생활문화동호회 한마당	5.2 - 5.13
제4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화 부문	5.16 - 5.27
제4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 부문	5.30 - 6.10

* 전시 관람 시간 10:00-18:00 (월요일 휴관)



성 남 아 트 센 터

Seongnam Arts Center

법인회원

온하수회원 박지향	(주)유엔젤 부회장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	----------------------------

달무리회원 신현규/김복선	
-------------------------	--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김진명/심정자 손경호/이동순 안봉혁/어윤경 이완근/홍은희 이재환/한정의	이노엘 대표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주)산성이엔지 회장 (주)위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	--

철쭉회원 김부경/김모민 김상한/오다영	
박동순/강송희 변봉덕/이매연 우문식/조남숙 이상우/강지선	동서메디케어(주) 대표이사 / 동서메디케어(주) 이사 아람휴비스(주) CEO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주)인베이트투자자문 사장 / 부동산라이프 대표 나우(주) 대표이사

정대혁/김대원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 100인회	
--	--

문화예술 애호가와 성남아트센터의 아름다운 동행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통해 성남아트센터가 세계 유수의 복합문화공간과 어깨를 겨루며 성장하게 돕고, 더 많은 사람이 성남아트센터를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취지로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성남아트센터 성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꼬모아트옥션 이사	故이종덕/김영주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창립자
탄천회원 박 철/하정진 여영동/이옥자 故최계순/김순자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前 (주)씨너스 회장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철쭉회원 강정원/정병태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 (주)예장다멘서 이사 산후조리원 라크렘 대표 (주)금화 대표이사 북극성제일치과원장, 前 성남시치과외사협회장 前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회장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검장 前 농협중앙회 이매동지점장 남송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장 국제로타리 3600지구 前 총재 서진공방 대표 /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중원구 보건소 약사 / (주)평화기업 이사 로즈피부와 분당점 원장 / 로즈피부와 청담점 원장 한국디지털콘트를(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치과의사 / 한국화가 前 대교 이사장 경기일보 상무 (재)유엔젤보이스 제작감독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주)인홍 대표이사 / 평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 前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감·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주)서울문화사 대표이사 사장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창립자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AMK 한화엔엑스엔디 대표이사 / 잡코리아 CTO N스페이스 회장 / N 갤러리 관장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주)패션아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세일기공(주) 대표 성남FM방송국 대표 모란새로음악국 대표 / 명당한의원 한의사 前 국립서울병원원장 / 서양화가 신한라이프 명예부사장 미술훈단 <線과 色> 前 명예회장 세무법인 청담 대표, (재)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패션그룹형지 회장 (주)심화 F&F 회장 (주)가람산업 대표이사 회장 前 상이제약 회장 / 수필가 (주)케이씨피 대표
김영자/이승오 김문기/김인숙 김연태/이주숙 김영수/원중순 김중현/정승희 김진환/이화용 김태호/김경자 남궁림/김순미 남선우/정정섭 박희자/조득환 박미경/강대식 배지영/윤영민 백중훈/지용애 서정림 손의명/손외자 故송 자/탁순희 신동화 신상진 오동영/이승희 유성희/유성은 윤영상/박인영 이경화/이정우 故이성무/김복기 이은화/정인희 이임수/이화자 이정식/고옥주		이매회원 김선애 박영일 서미라 윤향남 전동욱 주재근 최은희

최병오/박종길 한병무/최정자 허용무/구은희 故허 참/홍애자 황광석/조영순		이매회원 김선애 박영일 서미라 윤향남 전동욱 주재근 최은희
---	--	--

까지회원 전동욱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	------------------------

명예회원 박명숙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신선휘	무대미술가,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박지향 **부회장** 강효주 **황광석**

이사 김연태, 박동순, 서정림, 정대혁, 황광석 **감사** 김길복, 김문기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팩스** 031-783-8020 **이메일** mecenat@snart.or.kr

	가입 기준	회원 구분	평생회비
법인(단체 포함) 개인		온하수	1억 원 이상
		달무리	5,000만 원 이상
		무지개	3,000만 원 이상
		탄천	1,000만 원 이상
		철쭉	500만 원 이상
개인		이매	(5년)300만 원 이상
		까지	(2년)100만 원 이상

※ 500만 원 이상은 평생회원, 기부회원